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安成洙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鄭龍卜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사

제529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5년 6월 7일 수요일

1

탐라문화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15일 대학원세미나실서

탐라문화연구소(소장 김영화 국어국문학과교수)에서는 오는 6월 15일(목요일) 오후 2시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적 검토'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연구발표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발표자 △19세기 제주도의 국가의례=조성운(사회학과 부교수) △19세기 제주지역 진상의 실태=박찬식(사회학과 강사) △조선 후기 제주지방의 군사제도=김상욱(표선상고 교사) ▲토론자 △권인혁(사회학과 교수) ▲문무병(제주교육박물관장) ▲김동진(사회학과 강사) ▲최정=고창석(사회학과 교수).

방사능이용연 세미나 개최

"생명과학의..." 주제

방사능이용연구소(소장 김중계 축산학과교수)에서는 지난 6월 2일 공과대 세미나실에서 '생명과학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Studies on improvement of nutritive qualities, ostolerance and respective gene expression in higher plant(권태호 충북대교수) 등 5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6월중 '의대설립 추진위원회' 발족

학내외 인사 15명으로 구성... 공감대조성에 주력

당국, 유관기관·지역사회와 연계 범도민운동 전개해야

우리대학에서는 오는 96학년도에 의예과신설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의대추위)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는 13일경 발족예정인 '의과대학 설립추진위원회'는 고장권 총장을 비롯한 학내외 인사 6명과 현직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의장 등 외부인사 9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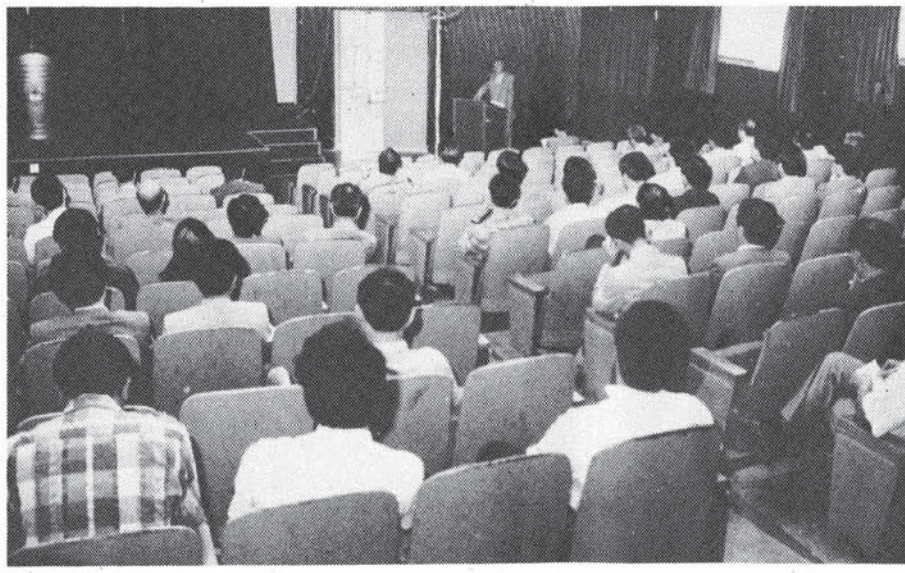
의대추위는 96학년도에 우리대학 내에 의과대학을 신설한다는 방침하에 의대설립의 당위성·필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의 협조체제구축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번 '의과대학 신설추진위원회' 발족과 관련 교무과 관계자는 "지난 6월초 의대설립추진위원회 추대승락서를 학교당국에 올리고 이에 대한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 15일안에 발족모임을 갖고 위원회 회의를 제정할 후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대학 의과대학 설립추진 추대위원은 다음과 같다.

▲학내 △고장권 총장 △김병국 교무처장 △신형철 기획연구실장 △이용환 자연과학대학 △김한원 평의위원회 의장 △박형진 교수 협의회장.

▲학외 △양정규 국회의원 △현경대 국회의원 △변정일 국회의원 △김희찬 국회의원 △김문득 제주도지사 △장정연 제주도의회의 의장



◇우리 대학은 내년에 의예과 신설을 범도민적으로 추진키위해 '의과대학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사진은 작년 9월 의대신설 무산 직후 열렸던 교수협의회 회의 장면)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회장 △이용희 제주의료원장 △김창진 총동창회장.

한편 우리대학은 지난 82년부터 도내 의료기관의 전문성확보, 낙후한 의료시설의 타개, 관광휴양지로서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의해 의대신설을 요청해 왔다. 우리대학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의대설립안을 상정했으나 그때마다 무산됐다. 작년도에 우리대학의 '95학년 의대신설' 계획이 교육부의 정략적 정책으로 인해 강원대보다 11점이나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좌절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의 교수협의회, 총동창회 등에서는 의대신설무산과 관련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대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여론에 밀려 당시 교육부는 96학년도에 우리대학 의과대학신설을 약속했고, 지난 4월29일 우리대학을 방문했던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은 "96학년도 제주대학 의대설립은 교육부의 확고한 방침"임을 밝힘으로써 96학년도 우리대학 의대설치계획이 확실시되고 있다.

의대신설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 모교수는 "의대신설 필요성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대신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대학에서 처음으로 발족하는 공식기구인 만큼 이

들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건다"고 피력했다. (김정임기자)

수학전공도서 기증

경문사, 1천6백여권

경문사(대표 박문규)에서는 지난 5월25일 A book of Abstract Algebra 등 수학전공참고도서 50여권을 수학부에 기증했다.

경문당은 수학전공분야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곳으로 수학과에의 요청에 의해 지난 91년 6월에 처음 기증한데 이어 지난 5월 25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원(1백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경문당은 수학전공분야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곳으로 수학과에의 요청에 의해 지난 91년 6월에 처음 기증한데 이어 지난 5월 25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원(1백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경문당은 수학전공분야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곳으로 수학과에의 요청에 의해 지난 91년 6월에 처음 기증한데 이어 지난 5월 25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원(1백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경문당은 수학전공분야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곳으로 수학과에의 요청에 의해 지난 91년 6월에 처음 기증한데 이어 지난 5월 25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원(1백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김한길기자)

민선지사 후보 정책설명회 개최

공동기획단, 15일 법정대 중강당서

참원 지방자치실험을 위한 학생 공동기획단(단장 한충건 해양 3)에서는 오는 6월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15일 오후 3시부터 법정대 중강당에서 민선지사에 임후보한 우근민, 강보성, 신구범, 신두환 등 4명의 후보를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대학교 교수 4명과 학생 2명등 모두 6명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해 각 후보들과

도내 현안및 임후보자들의 정책소견을 직접 들어볼 수 있도록 정책기초발표와 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최측이 발표한 질문내용은 △제주도개발과 환경 △농업 △4.3 △대학교육방안 △개방에 대한 주민참여방안 등 5가지이다.

한편 공동기획단은 부정선거 고발창구를 개설, 운영하면서 지방자치제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말고사 19일부터 실시

미응시자 사전에 연기원 제출해야

2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95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가 지방선거로 인해 당초예정보다 2일 앞당겨 오는 6월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전공 및 교양과목별로 실시되는 이번 기말고사는 교양과목은 수업과에서, 전공과목은 담당교수가 각각 정한 시간에 실시된다.

수업과에 의하면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은 사유서를 첨부한 시험연기원을 시험전까지 소속학과장에게 제출해 소속대학

학장승인을 미리 받아야만 6월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본사사령

장영준(행정1), 현재희(회계(야)1), 고봉수(경영1), 김용순(농화학1), 김영범(해토공1), 유은주(화학1), 조승만(전자공1) 이상 7명을 6월7일자로 수습기자에 임함.

제15회 백록학술상 현상공모

■분 야

- 주제논문(70매 내외)
-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에 관한 내용
- 일반논문(70매 내외)
- 인문사회, 자연과학분야

■시 상

- 주제논문 당선작 1편-50만원
- 일반논문 당선작 각 1편-50만원

■응모 마감: 11월20일

■제 출 처: 대학원동(구 학생회관)3층 본사편집국 (등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학술상응모작품'임을 명기할 것)

■응 모 자 격: 우리대학교 재학생

■당선작발표: 추후 공고

■기 타: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54-2278, 2279)

제대신문사

출돌하르방

편파보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4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의 언론들은 각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보다 그들의 주변 동세나 여론조사 결과, 연립별, 지역별, 성별 지지도를 보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인물중심의 흥미보도와 정책나열식 보도를 일관하고 있다.

또한 요즘들어 급조해낸 'Big-3'라는 용어가 말해죽듯이 널리 알려지고 당선 유력시되는 후보만을 보도하는 편파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어 언론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에 서울시장에 임후보한 후보를 대상으로 한 관훈토론회와 KBS초청 3자 합동기자회견이 이것을 단적으로 입증한다. 이 토론회에서 정원식, 조순, 박찬중 등 소위 'Big-3'를 제외한 황상선, 김옥선, 정기용씨 등 나머지 서울시장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제외되었다. 이와같은 조치에 나머지 세후보들은 "언론이 세후보만 집중 보

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제주 KBS방송총국과 제주도 기자협회최초로 지난 2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의 우근민, 민주당의 강보성,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신구범 후보 등 3명만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선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두환 전 민권당 사무총장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선별토론회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각 중지해야 하고, 특정인만을 의도적으로 골라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이들에게만 선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제주

지방 법원에 공개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사들의 선별적인 토론회선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례로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가운데 자치단체장 선택 기준으로 텔레비전 토론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언론의 보도가 부동층의 표를 좌우시켜 자치단체장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유권자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게

경문당은 수학전공분야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곳으로 수학과에의 요청에 의해 지난 91년 6월에 처음 기증한데 이어 지난 5월 25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원(1백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경문당은 수학전공분야 서적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곳으로 수학과에의 요청에 의해 지난 91년 6월에 처음 기증한데 이어 지난 5월 25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6백여만원(1백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김한길기자)

교수초빙

1.초빙분야

학 과	분 야	학 과	분 야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문법, 중문학(시문학 제외)	수 학 교 육 과	위상수학
사 학 과	한국사(지역사 강의 가능한 분)	컴퓨터교육과	운영체제
미 술 학 과	서양화	해 양 학 과	해저중서학
법 학 과	민법 및 국제사법	수 학 과	해석학
경 영 학 과	재무관리(※지나호 광고에 누락됨)	전산통계학과	Data Base
관광경영학과	관광사업론(관광인어회화 강의 가능한 분)	정보공학과	Pattern Recognition
무 역 학 과	국제경제통합론	계측(적응)이론 및 응용	
사 회 교 육 과	도시지리학	화 학 공 학 과	무기공업화학
(지리교육전공)	(GIS 강의 가능한 분)	계	17개분야

2.초빙인원:분야별 각 1명

3.자격: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만, 서양화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함.

4.제출서류

가. 이력서(명함사진 첨부, 지원분야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원본 각 1부.

다. 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전경력)1부

라. 연구실적목록(제목, 연구자, 발표년월일, 발표지 및 논문개요 기재-국문으로 작성) 1부

마. 연구실적물

1)최종 학위논문 1부.

2)학위논문 이외에 '91.6.1이후 발표된 연구실적 원본 1부(논문 등 300%이하) ※300%의 범위안에서 심사하므로 심사를 원하는 연구논문(실적)과 연구실적목록에 '심사용'이라고 표기할 것.

바. 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과 함께 필히 제출할 것.

사. 성적증명서에는 전과점 평균성적(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5.서류 접수기간:1995.6.17(토) 13:00까지(우편접수도 13: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6.서류접수처: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7.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공채지침에 의함.

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본교 교무처 교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064-54-2012, 55-6204, FAX 064-55-6130)

1995. 6. 1

제 주 대 학 교

'95 하계방학 외국어 특별 강좌 안내

1. 강좌기간: 1995년 7월3일~8월11일(월~금요일)
2. 신청기간: 1995년 6월7일(수)~6월17일(토)
3. 신청장소: 외국어교육관 행정실(☎ 54-2291~2)
4. 수강대상: 재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
5. 수 강 료: 영어, 독일어-30,000원, 중국어-20,000원
◆영어, 독일어: 1일 90분, 30일, 총 45시간 강의
◆중국어: 1일 60분, 30일, 총 30시간 강의
6. 수강인원: LAB실 사용 강좌-60명 기준, 일반 강의실 사용 강좌-60명 이상
※수강 인원이 미달된 경우는 담당 교수와 협의 후 개설 여부를 결정기로 한다.

구 분	시 간	강 좌 명 / 교 재 명	비 고
아침반1	08:00~09:30	Family Album U.S.A.	•자세한 강의내용 소개서는 외국어교육관 행정실에서 배부
	08:00~09:30	Family Album U.S.A.	
	08:00~09:30	Family Album U.S.A.	
	08:00~09:30	TOEFL Structure & Written Expression (Academy TOEFL)	
	08:00~09:30	TOEFL Reading Comprehension (Academy TOEFL)	
아침반2	08:00~09:30	생활독일어	•저녁반은 학생들의 의견 반영, 조정 가능
	09:40~11:10	TOEFL Listening Comprehension	
	09:40~11:10	TOEIC Listening Comprehension	
	09:40~11:10	Focus on Business	
	09:40~11:10	TOEFL Structure & Written Expression (Academy TOEFL)	
저녁 반	09:40~11:10	영어순해	
	09:40~11:40	중국어 I	
	10:50~11:50	중국어 II	
	17:00~18:30	Family Album U.S.A.	
	17:00~18:30	Focus on Business	
저녁 반	17:00~18:30	TOEFL Structure & Written Expression (Academy TOEFL)	
	17:00~18:30	TOEFL Reading Comprehension (Academy TOEFL)	
	17:00~18:30	TOEFL Reading Comprehension (Academy TOEFL)	

외국어교육관장

社說

21C, 대처방안은?

—한학기를 마치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자 지방선거의 달이다. 장미의 계절이자 장마의 계절이기도 하다. 또 한학기의 마무리 달이면서 다가오는 방학에 대한 준비의 달이다.

이 달은 유난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케 하고 많은 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요구하면서 신중한 선택과 충실한 준비를 바라고 있다. 이 달은 매우 중요하다.

호국보훈의 달에 즈음하여 내조국!

얼마나 내가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조국은 고귀하다. 조국은 우리자신의 정신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머니에게 속해있는 것처럼 조국에 속해 있다.

지난달 27일로 개교 43주년을 맞은 우리대학! 얼마나 우리들은 제주대학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진실로 가슴속에 제주대학에 대한 작은 사람이라도 품고 있으며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은 그것이 희생일 때 이외에는 사람이라는 이름에 적합하지 않다. 희생없이 진정한 충족함을 얻을 수 없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는 하나같이 괴로운 길이며 자기희생의 길이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 및 세계화의 물결이 성난 노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냉엄한 현실앞에서 우리는 우리대학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명쾌한 대답은 용이하게 나오지 않는다. 다만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 및 세계화에 대응해서 어떤 형태로든 변화해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다.

타율에서 자율, 획일화에서 다양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 학위위주에서 기능중심에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5·31 교육개혁안'이 1년3개월 진통 끝에 발표되었다. 대학의 병목현상을 풀고 대학의 다양화를 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개혁방안이라는 평이다. 이 개혁안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과 교육행정자, 교사, 학부모의 동참을 유도할 공존화 과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지방화 시대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세계화 시대에 개방적이고 진취적이며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정보화 시대에 고도의 지식기능을 산출하는 대학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타대학들과 다른 독특한 고유의 대학의 발전비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이다.

무한경쟁시대로 우리앞에 열려 올 21세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대체로 선진지식과 과학기술의 창출이라는 과제로 집약된다. 이 과제를 수행할 수단이 바로 교육이며 그 주체가 대학이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공동된 인식으로 자리하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국가간 경제통합으로 세계화가 확산되고 정보통신혁명으로 조직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등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 자신과 국가발전에 공헌하려면 철저한 대학생활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나는 진정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거듭하면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주대학발전을 위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대학은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며 나아가 명문대학으로 진입할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장미의 계절에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는 말의 깊은 뜻을 되새기자. 이 6월에 제대인 모두는 대학사랑의 지혜와 힘을 모아 대학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과감히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이다.

방송 학사일정

△7월3일~29일: 하계계절수업운영 △7월17일~8월12일: 하계방학특수일 특별연수(독어독문학과) △7월26일~31일: CEBS 하계이동방송(교육방송국) △7월중: 제1학기 동료상담자 리더연습(학생생활연구소) △7월중: 학생자치기구 간부수련회 △8월21일: 제2학기 개강.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서 '우째 이런일이...'

분실신고 절차 복잡하다고 중도포기 말아야

세상이 각박해짐을 느낀다. 지금도 우리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사람. 그 사람은 잊었겠지만 나는 정말 잊지 못하겠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서 그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6월 11일 이었다. 우리학교 농협에서 현금 지급기 위에 지갑을 올려 놓고 Card 조회 중이었는데 아는 후배와 얘기하는 사이에 지갑이 없어졌던 것이다.

아라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지갑에는 10만원권 수표 두장이 있었다. 수표 두장은 다행히 제대농협출장소에서 발행한 것이어서 수표번호는 금방 추적할 수 있었. 농협 직원을 통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찾을 수 있을 지는 잘 모른다 고 했다.

우선 농협에 신고하고는 다시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쁜일이 연속으로 생겨서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나중에 농협에 가니까 고맙게도 수표추적을 해주었다. 범인이 여자였다는 말과 함께, 지하상가 옷가게에서 수표를 썼는데 가게에서는 배서를 받지도 않았다.

금융실명제 이후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가게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며칠 후 지갑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어떤 학우가 지갑을 습득하고는 나에게 준 것이다. 지갑에 카드까지 있었다면 정말... 지갑을 소홀히 한것은 나였지만 전부터 나의 책임인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버릇.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대 학우였기에 나는 슬플뿐이다. 수표사건으로 법원까지 갔으면 좀더 좋은 경험이었을 텐데... 만일 여러분 중 누군가가 나와 같은 일이 생겼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왔으면 한다. 적어도 받은 받을 수 있고 어쩌면 범인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금융실명제지 정말 어렵다.

용서를 하고 싶지도 않은 그사람, 그사람은 아직도 우리 학교를 유유히 다니고 있겠조.

(고석형 농학학과 3)

특자의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들을 담는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분량: 3매내외, FAX: 56-2204)

■노동조합 총파업 사태를 보며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필요

노동 쟁의는 불평등 대우가 주요인

요즘 학생회관과 본관벽, 그리고 학교 곳곳에 걸려있는 플래카드를 보면 무언가 다른때와 틀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제주대학교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대자보와 현수막들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차례의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고 전국국립대학 노동조합이라는 대표성적 협상에 각 대학 총장들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 역시 총장이 공동교섭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 노동위원회가 총장과의 면담에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쫓겨났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지만 노동자의 쟁의는 아주 간단한 곳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불평등과 불평등적인 대우이다. 요즘의 신문들은 노동쟁의를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 않는 것 같다. 현대, 현대, 한통, 부산지하철. 그리고 우리학교등 다시 전국이 노동자들의 불평등 타파의 외침으로 메워지고 있지만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에

게는 그것이 눈에 가시로 보이고 많은 국민들 역시 그렇게 보고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언론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지자체 선거라는 배틀필드 기사가 속속되고 있다. 학생들 역시, 특히 우리학교의 학생들 역시 관심이 부족하듯 보인다. 바로 우리주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물론 모든 사태의 과인은 개

인의 몫이다. 그러나 해마다 이때면 하는 일이라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유해 버리는 것은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가져야 하는 대학인으로서 자기 책임회피일 것이다. 우리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때이다. (강경훈 법학과)

캠퍼스 빈공터에

운동시설 설치해야

교내의 운동시설을 돌아보면 한 마디로 한심한 실정이다. 대운동장의 경우 축구부들의 연습 때문에 거의 이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소 운동장을 찾아가 보면 보통 서너팀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일쑤이다. 그렇다고 운동장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운동장이라기 보다는 자갈밭이라는 표현이 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단대앞의 빈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남을때 축구등 간단한 운동을 즐기던 이 공간도 이제는 주차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학생들이 학교에 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도는 행태들도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리라!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내 빈 공터들을 이용해 축구나 배구등 간단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해야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야만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밖으로 나도는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접점이 될 것이다. (이동환 물리2)

도서관은 소지품

보관하는 장소 아니다

시험때가 되면 으레 도서관은 많은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이라면 한변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분명히 어떤 자료들은 임자없이 비어있는 자리같으면서도 빠져있지도 않은 책 한두권만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알지도 못하고 힘들게 올라간 도서관에서 헛당치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자리, 저 자리 눈치만 보면서 앉아있다가 자리가 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막상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 반도 안되고 책상위에 퍼져있거나 널려져 있는 책들을 보면 마치 도서관이 아니라 소지품 보관하는 곳 같다.

오죽했으면 지난 중간고사기간에는 ○월 ○일 ○일을 기해 입지 않는 책, 가방등을 모조리 치워 버린다는 무자비한 벽보까지 붙였으리라.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글로써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시도도 전혀 효과가 없었다.

여하튼 질서있는 타인도 생각할 수 있는 학내가 되기 위해서는 학칙이니, 학생회의 활동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참여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김도영 해양토목2)

어떻게 됩니까?

체육관장 답변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허락시 야유회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
쓰레기처리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본지 5월31일자(528호) '독자의 소리'를 통해 국어교육과 김소현 학우가 지적했던 '일요일 캠퍼스개방 고려해야'에 대한 관계당국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일요일 캠퍼스개방기준에 대해 이창준(체육학과 교수)체육관장은 “우리대학과 연관련 유관기관과 대학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캠퍼스사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그외의 종교단체나 선거와 관련된 단체에서 주최하는 야유회는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장은 또한 “문제가 된 야유회는 제주은행에서 주최했던 행사”라면서 “원래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한달 전부터 허가승인이 있었으나, 갑자기 경성대학교 야간강좌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운동장 및 체육관을 사용해 버리는 바람에 제주은행측에서는 체육대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못하고 뒷풀이 형식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더니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노래방 시설까지 동원하고 대낮에 술마시는 야유회는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관장은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승인이 이루어지는 기관에 대해 요청하였고,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허락시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어떻든 앞으로 캠퍼스에서 행사를 갖는 기관 및 단체들은 자신의 놀이행위가 자칫하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소현 학우의 지적대로 대학캠퍼스가 열린 토론의 장으로 될 수 있도록 학교당국에서는 일요일 캠퍼스개방문제도 면학분위 조성 과 관련시켜 한달에 1회로 한정 시키거나 캠퍼스 사용허가승인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쓰레기해소 방안도 함께 강구해봐야 할 것이 다. (정용복기자)

매체비평

언론사, 자사이기주의 탈피해야

객관적이고 치유적 관점 취하는 것이 바람직

요즈음 각 신문사, 방송사마다 보도되는 큰 제목의 사건들이 각 기사마다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 같다. 원래 지면으로 접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신뢰감이나 설득력이 강하다. 인쇄매체나 공문서 양식에 아직 덜 익숙한 독

자로서는 오직 자기가 접한 지면이나 화면만이 철칙이고 믿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방향으로 사건을 비추지 못하고 한쪽 방향으로도만, 더욱이 자사의 이익과 권력의 옹호를 위해 갈라내려간 기사에는 이런 정말 신물이 날 정도이다.

언론매체, 여론, 우리 개개인의 생각까지도 이런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생각해 보아야 하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아야 하며, 따져 볼 것은 다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한국통신의 노조운동... 이것은 정부의 공권력 남용인가? 아니면 노조측의 단결권 남용면은 없는가?

'정쟁의 명분'발원으로 새교육

정책 발표를 며칠 앞두고 해임당한 김소현 전 교육부장관의 기사.

대구 가스폭발 사건 이후 'KBS (Korean Baseball System)'이란 칭호까지 붙이면서 언론과 정부의 합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던 여론이 그 또한 다른 정치권에 의해서 이용되어진 것이라는 아이러니한 얘기도 우리는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80년 광주사태로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수천 수일을 보도해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것을 그렇게 한계선에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기사를 중지했던것에 대해서 그때도 이렇게 대구시민들이 나서서 분노해 주었던가? 대구 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에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젠 더이상 언론매체에 농락당하는 일도, 언론을 남용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항상 생각의 방향을 여러모로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 지금 이 문제도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한 신문사의 옹호로 특정유권자가 동정표를 사고 있다니 이것이 말이냐 되는가? (황미자 독문2)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실현하는 기업 - 現代

“노래방 점수가 몇 점이에요?”
입사 면접 첫 질문이었습니다.

인재를 보는 눈이 새로워졌습니다.

‘나’의 진가를 알아 주고 내가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일터, 그속에서 하루 하루 성장해 가는 나의 모습 -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나같은 인재’를 몰라 보는(?)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現代는 94년부터 무자료 면접 (BLIND INTERVIEW) 을 도입하였습니다. 과장급 선배들이 1차 면접관이 되어 학벌, 성적, 인맥, 지연 등 응시자의 외적 배경은 모두 접어 두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그사람의 진면목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래방 점수가 몇 점이에요?”
“장기가 물라 춤이라고요? 한 번 보여주시 수 있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와 인간적인 질문에 응시자들의 긴장된 얼굴은 풀어지고 살며시 미소까지 짓게 됩니다.

열린 가슴으로 다가서는 기업, 언제나 새로운 발상이 가득한 기업 - 現代가 21세기 기업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합니다.

現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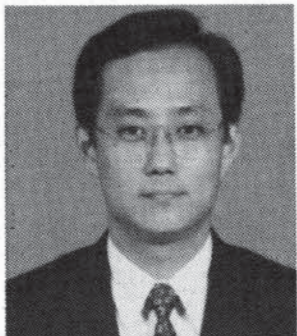
기획논단 해방50년과 한국의 과제⑤—북한핵외교와 한국의 대응방안

북한 핵외교, 하나의 생존 전략

북한에도 정확히 판단...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해야

1. 북한 「핵외교」의 목표

현재 북한은 「3대혁명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에 있다.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국제혁명역량」강화에 큰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한국에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남조선혁명역량」증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북한 자체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은 경제상황 악화



김영수
국민윤리교육과 초빙교수

와 외부정보 유입으로 급격한 감소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개발」카드를 활용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정권의 총체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핵외교」를 통해 김정일 후계 체제문제, 경제체제 위기, 군사력 열세 등 국가 위상을 결정짓는 주요소를 한번에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북한 「핵외교」의 전개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어떤 국제적 압력 속에서도 「핵 투명성」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끈질긴 태도다.

「핵 모호성」유지가 미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핵외교」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최대지연·최소공개」의 전술을 활용해 왔다. 또 협상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남한, 미국, IAEA 등 협상상대와의 대화비중을 조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시키고 국제공조체제의 이완을 시도해 왔다.

「핵외교」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또 하나의 일관된 입장은 「한국 정부 고립화」전략에 따른 직접적인 대미협상 관철태도다.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구되어 왔는데, 최근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고립화하려는 이면에는 한국정부 2개의 지지원천, 즉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한국 내의 국민적 지지기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편, 한국을 「심리적으로」취약한 존재로 평가하고 있다. 즉, 북한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한국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한미관계의 불협화음이 발생되면 남한 내에 한국정부의 취약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여론이 증폭될 것이고, 이로 인해 분열과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정부의 대국민 지지기반이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에도 결정적인 손상이 가해지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를 고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남북대화 거부와 더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20여년 전부터 추구해 온 미국과의 군사회담이라는 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 풀란도 대표단을 철수시켰을 뿐 아니라 판문점 공동관리구역과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북측 지역을 폐쇄하고 비무장지대 군사활동 등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북한은 「대남혁명역량」을 증대시키고 한국정부를 고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1991년 8월 1일 김일성이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담화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계급」개념에 입각해 전개해 왔던 기존의 통일전선전술 대신에 「민족」개념에 입각한 새로운 차원의 통일전선전술을 실행하고 있다. 예컨대, 단군릉 준공식에 남한인사들을 초청하거나 남북한 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범민족회의」개최를 제안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즉, 정부간 대화를 거부하고 비정부단체 및 종교단체와의 교류를 시도하여 한국 정부의 대국민지지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3대혁명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 속에서 「핵 모호성」을 전제로 한 「핵외교」를 전개하여 「국제혁명역량」과 「대남혁명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의



◇북한은 정권이의차원에서 「핵외교」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었고, 미국과 직접협상을 시도해 한국을 고립화시키는 의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진: 지난 94년 6월20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남측의 이종구(당시 통일원장관) 국무총리와 북측의 김용순 대남비서가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도가 성공한다면 대미관계와 대일관계가 호전될 것이고 그 결과 얻어지는 경제적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민족제일주의」는 리로 힘들게 「사회주의 혁명역량」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발전시킴으로써 김정일의 정통성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는 것이다. 결국 「핵무기개발」을 내세운 「핵외교」는 북한에 있어 외교카드이자, 생존전략인 셈이다.

2.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외교」에 직면하여 기본적으로 「대북 협력론」이라는 온건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왜냐하면 북한 핵문제는 첫째,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당면 과제이지만 핵문제 해결방안은 남북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둘째, 북한 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한미간 및 국제적 공조체제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근거하여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차원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셋째,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의 시간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정부의 입장과 NPT체제를 유지하고 동북아의 지역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작용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94년 10월의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문」 내용이 단적으로 이를 입증해 준다. 북한은 합의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을 대상으로 대외적으로 협상력을 과시하고 북한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40억 달러에 이르는 경수로 및 중유 등 막대한 실리까지 차지했다. 이를 두고 북한은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가 비상히 높아진 획기적인 사변”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이 합의과정에서 북한은 「과거 핵의 투명성」도 규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을 획득했는데, 이로써 한국은 앞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믿어지는 북한을 상대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달라지게 된 것이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 「핵외교」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입장에서 북한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할 것인 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서서히 무너질 것인가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런 낙관적인 예상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심리학에서 수용성 편파(the availability bias)라고 부르는 인지적인 오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쉽게 버려져 버려진(수용이 쉽게 되는) 것(예: 동독의 급작스런 내부붕괴의

無 論 有 說

無論有說과 教育改革

1.

無論有說. 평소 「제대신문」을 대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특이하고 재미있는 말이었다. 이제 그러한 글을 써 달라고 부탁받고는 글자 그대로 無論有說을 쓰려고 한다.

그렇지만 사실 論(論旨 혹은 論理) 없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형식수설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 보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항상 뚜렷한 논지와 논리체계를 갖고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수도,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때로는 아무 생각없이, 조리없이 하는 것 같은 말 속에 소위 「뉘」가 있다 하지 않는가. 儒學의 橫看法을 인용하면 좀 패변 같기는 하지만 橫說說 說 說 說 “조리가 없는 말을 함부로 지껄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한편 論과 說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역시 無論有說이라 할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論도 없이 잡설만 무성한 것 보다는 확실한 주장이 있으며 그것을 행함에 딸만 요란한 게 아니라 내실이 있는 태도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보니 필자야말로 論과 說, 有와 無의 개념이나 용법을 제대로 규정하지도 않은 채 無論有說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미로 論과 說의 「있고 없음」과 「있지 않음」을 편리하게(?) 구사하여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게 쓰고자 한다.

2.

정부가 드디어 교육개혁안을



양방주

내놓았다. 당연히 그 반응은 매우 뜨겁다. 이는 교육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워낙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그 중에는 혁명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어쨌든 교육에 관한한 모든 사람들이 장관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말이 많은 것이다. 왜 이러한가? 교육개혁(안)이 論은 없고 說만 많아서인가, 아니면 論에 치우쳐 실질적인 說은 없거나 타당치 않아서인가. 오히려 사람들이 論도없이 잡설만 늘어 놓아서인가, 아니면 이 상론에 떠들 실전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인가. 그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이며 높은 관심은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오히려 혼란만 부칠지 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후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태도는 이데올로기적인 모습을 띠거나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조차 하다. 이러다가는 한때 요란하여 떠들다가 호지브리지해진 기존의 교육개혁의 전철을 답습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교육개혁(안)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건전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행에 앞서서 모든 교육관계자들

이 교육개혁(안)의 본질을 냉철하게 충분히 파악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말하자면 論을 충실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안)에 담겨 있는 인간관, 사회관, 역사관 등의 이념문제, 개혁이 기존체제에 미치는 양면적 결과의 문제, 방법상의 자율과 규제의 문제 등등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관심이 유지되고 그것은 비판을 통한 구체적 실현방안의 모색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교육당국은 일방적 홍보나 밀어 부치기식의 여론조성을 지양하고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안)에 대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후속조치를 행함에 있어서 과감할 수 정, 보완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 중에서 현재의 교육개혁(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대중적 차원에서 이를 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를 의미있게 맞이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바른 인식을 토대로 그것을 마땅하고 바람직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교육개혁(안)은 有論無說이나 無論有說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 쓰고 나니 요창한 분량을 넘기면서도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은 이글이 정말 無論有說이 되어서인가 싶다.

(국민윤리교육과 부교수)

보기)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또한 이른바 「안락사」론에 입각한 「대북 협조론」의 시나리오도 매우 단선론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경제지원을 받고서도 내부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오히려 체제가 공고화될 수도 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초래되면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북한의 경제력이 회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 안정을 유지하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의 단결력과 의지가 어느 쪽이 강인가에 따라 체제 경쟁의 향방이 정해질 수도 있다. 비록 북한의

국력이 남한의 국력을 능가하지는 못할지라도 남한이 총력을 기울여 체제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북 협조론」의 또 하나의 취약점은 시간이라는 변수를 한 쪽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대북 협조론」에 의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동안 미칠 북한 「핵카드외교」의 파장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북한의 「한국 고립화」전략에 의해 한국의 고립이 심해질 때 국내 정치 분열 및 한미간 외교적 마찰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주기적으로 치루어야 하는 선 강간가에 따라 체제 경쟁의 향방이 정해질 수도 있다. 비록 북한의

로형선택문제에 이은 경수로 지원 비용문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제로의 전환문제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결국, 북한 「핵외교」의 효용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북한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해 일관성있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것뿐이다. 북한 정권의 사회적 이익차원에서 「핵외교」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간에 「핵모호성」을 지키려고 할 것이며, 미국과 직접 협상을 시도해 한국을 고립화시키는 것이 북한의 의도임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상당기간 북한의 입장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독립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지형·활동지형·침입지형으로 미래시대를 열어나가자



한일의 미래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일그룹

달걀을 세운 콜롬부스와
새로 새끼를 낳은 소년 —

모두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콜롬부스는 달걀을 깨뜨려 새웠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소년은 새로 새끼를 낳는 중국사신의 요구에 새끼를 태워서 보내는 기지를 발휘해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다른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 도전적인 사람들,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한일의 미래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밝은 미래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다. 지역발전과 우리대학발전은 그만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에서는 이번에 민선지사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자들이 우리 제대인들에게 고하는 '출마의 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독자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취재이승)

제주의 자존, 위대한 제주시대의 개막

1. 청년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터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그 나라의 장래를 보려거든 그 나라 청년의 가슴과 눈을 보라고 하였다. 차가운 머리보다 뜨거운 가슴이 있고 언제나 미래를 직시하는 눈을 가진 청년이 있을 때 그 나라의 미래는 믿어진다. 이만쯤 청년의 정신과 눈은 그 나라, 그 지역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척도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제주도 청년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주의 미래를 정말로 밝다고 확신한다.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차고 지역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할 자세는 우리의 청년시절과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을 볼 때 설패로서 여간 대견스럽지 않다. 나는 지사재임시절에 도내 대학에 가서 강연하고 대화할 기회를 많이, 갖는 행운을 가졌다. 강연하고 토론하고 교문을 등지고 나오면 3년 묵은 제가 한꺼번에 빠지는 것 같이 정말로 시원하고 힘이 저절로 난다. 청년 대학생들과 만나면 나는 언제나 신선한 산소로 나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분을 느낀다. 나는 지사재임시절에 도내 대학에서 여러 새로운 정책적상을 얻었는데, 이는 여러분들이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제주를 팔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는 사랑과 희생을 밑바탕에 두고 제주도를 말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정말 봐도 봐도 '살중지급' 않는 순수한 제주청년학생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은 얼마만큼 그들의 꿈을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까 하고 자문자답해 보면 저절로 부끄러워지곤 한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내 마음에 아직도 청년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거리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도지사직을 맡게 된다면 나는 제주도 청년학생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역사의 터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 본다.

2. 제주의 자존,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전대미문의 커다란 두개의 폭풍앞에 놓여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이 바로 그 폭풍인 것이다. 세계화는 무한한 경쟁의 물결이요, 지방화는 홀로서기의 물결이다. 그러나 세계화와 지방화는 속성으로 보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일치된 개념이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둘다 개방과 자율화, 그리고 참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세계화와 지방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시대의 지방화는 과거 지역주의나 지역국수주의와는 달리 패배성을 극복하고 독자성과 개방성을 기초로 한 지방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세계화도 지방의 다양성과 독자성에 개방과 경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무소속 신구범

지방의 세계화보다는 지방에 의한 지방의 세계화가 더 효율적이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관여하기에는 모든 부문들이 이미 성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경보다 지방과 지역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세계화의 초석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여할 부문은 더욱 적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WTO의 출범으로 중앙정부가 과거와 같이 각 부문에 지원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는 지방화가 진행되면 필수로 그 조직의 원리와 문화는 세계사회의 발전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지방화와 세계화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미야모토 겐이치는 "지방화란 중앙중심의 정치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생활에 뿌리내린 지역의 자기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방화와 세계화는 자율성을 그 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은 자존의 바탕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모래위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로. 자존은 선인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와 정신위에 우리의 시대적 가치가 가미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선인들이 어떻게 이 제주도를 지켜왔는가를 역사적으로 보면 자존심 하나 갖고 이 제주도를 지켜왔던 것이다. 제주의 자존은 정의의 위에서는 부러질지언정 구부러지지 않는 정신을 말한다. 부당한 압력이나 권력 앞에서 무릎꿇고 사는 것보다 서서 죽기를 더 원하는 불굴의 정신을 우리 선인들은 우리에게 물려주었다고 나는 늘 생각하고 있다. 나는 오늘날까지 적어도 이러한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유교와 상관과 권력에 조금만 굴했다면 아마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나의 정신, 제주선인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물려 주었던 그 자존심 따라 행동하고

사고하는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여러번 듣고 보았다. 이렇게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시절의 꿈이 나의 가슴에 언제나 잔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일, 모래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민자당 공천과정에서 협상, 즉 정부에 순종을 하면 출세를 보장하겠지만 불순종하여 선거에 출마를 하면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였다. 나는 불순종, 즉 떳떳함을 택하였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 선인들이 어떻게 지켜온 자존심인가, 우리 후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주정신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나는 불의에 결코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선거에 꼭 당선되는 것만이 제주의 자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대외에 경고하는 일이라 확신하여 출마를 하였다.

3. 세계속의 일등제주를 만들 비전을 제시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존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자립이 없는 자존은 허세일 뿐이다. 우리는 자립을 통해서만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 선인들의 정신과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립은 과거 주남정신만 갖고 될 수가 없은 세계화라는 물결 때문이다. 나는 지금까지 타 공무원에 비해 다양하고 비교적 오랜 외국생활, 고급관료로서의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와 지방화의 격랑을 헤쳐나갈 방향과 방법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은 세계속의 일등제주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을 말한다. 일등제주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면관계상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다. 나는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의 청년열기가 같이 숨쉬어 준다면 세계속의 일등제주는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는 영광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 세계속의 일등제주를 위한 제주경영의 비전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제주도를 동북아 지역 20억 인구의 생활·산업중심 지역으로 만든다.

- 1) 경쟁력 있는 수출·농·수·축산업-첨단 기술을 통한 1차산업의 경쟁, 수출을 실현하는 아시아의 네덜란드로 만든다.
- 2) 개발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보전지-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환경이 중시되는 환경의 섬으로 가꾼다.
- 3) 세계수준의 국제관광지-세계최고수준의 자연보전형 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
- 4) 인간다운 삶의 공동체-지역의 균형발전과 제주형 복지시책으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인다.
- 5) 한태평양의 정보 중심지-세계의 정보가 논의되고 집결되는 정보의 섬을 만든다.

제대인에게 고하는 민선도지사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

무보수 도지사로 일관한다

친애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생여러분! 청년학도 여러분의 위대한 미래지향적 꿈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장한 보금자리로 정착될 날을 기원하며 학수고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감히 제주도지사출마를 하나의 환상적 형이상학적 감상에서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희망찬 21세기를 눈앞에 다가선 선상에서 민족독립해방과 개념상 일치되는 민주해방이 자기만족 민족의 영봉 한라산 한허리까지 당도하고 있습니다. 목전에 둔 선거전에 저는 지난 5월 23일 제주도청기차실에서 제주도지사출마선언을 공식으로 공표했으며 그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는데 보탬이 될까 해서 여기 지면을 할애하는 바입니다.

'야성무소속'으로 출마!

『제주도지사 출마선언!』 존경하는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불초 申斗完(신두완)은 1989년 10월 27일, 제주도청 기차실에서 뜻한 바가 있어 무소속으로 민선지사선거 개막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예비적으로 밝힌 바 있었습니

다. 그런데 목전에 다다른 6월27일 드디어 민선지사선거가 확정, 임박하고 있는 작금입니다!

최근에 경향각지에 속속들이 출마에 상지중 申斗完(신두완)도 출사표명단에 끼어 있었으나 도내 매스컴에는 번번이 보도망에서 빠짐으로 인해서 열화같이 상원하는 도민들의 관심속에서 빛발치는 출마선언 제후에 더이상 침묵을 미덕으로 일삼아서는 안되겠다 판단을 내려 만시지탄이아니 장고 끝에 오늘 비로소 장벽을 깨고 사실상 제1의 강한 선명야당기치를 들고 감히 제2대 제주도 민선지사에 야성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만천하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3년전 대한민국 정치1번지 서울 종로구에서 당당하게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제주탐라의 기상과 패기를 전국민에게 통쾌하게 알리드린 역사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박정희(朴正熙)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군부독재 쿠데타 탈권집단에게 초강경결사항전투쟁으로 청춘을 불사르고 국가와 민족 우리 제주도민의 인권쟁취를 위하여 장장 40여년동안 민주혁명가적 십자가를 등에 매고 산전수전을 지금까지도 계속 사수하고 있는 申斗完(신두완)은 남아프리카 대통령선망야당투쟁 노선과 일치한다고 여사는 분명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도민들의 성원속에서 평생 을·두고 반독재투쟁 민권의 기수! 변함없이 파란만장한 가시밭 인생의 길을 마다않고 전개해온 申斗完(신두완)이가



무소속 신두완

무소속 민선지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의 설움'을 끝장낸다

민선지사는 국회의원처럼 정치무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므로 여당이다 야당이다 감동이라 배움이라 하는 부질없고 쓸데없는 간성들을 철두철미하게 배제해서 오직 범도민을 위한 중추적 행정철학을 확립시켜 깨끗한 행정! 밝은사회! 풍요로운 생활! 경이적이고도 아름다운 진주의 섬! 거기에다 만인이 평등한 제주탐라의 얼을 21세기 세계 제1의 고도한 도민소득으로 비약의 발전적 터전을 마련하는 설계와 비전은 이미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6월선거는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가장 깨끗하고도 돈독쓰게 하는 공명선거가 온 도민들로 하여금 일치단결하여 감시와 감독만 철저하게 지켜주기만 한다면 민주해방 선거혁명속에서 단연 저의 승리는 명약관화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인통치하에서 온갖 구박을 당하면서 국회의원이자 장관이다 또는 도지사이다 하는 아무아침 탐관오리(貪官汚吏)감투를 단 한번도 못써본 남아프리카 벨스 만델라가 드디어 긴 역경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듯! 일생의 민권기수 申斗完(신두완)에게도 그와 똑같은 운명을 내려주시고 제주도에 희망찬 소금이 되고 진정한 발갈쇠머슴이 되게끔! 그리하여 활력이 넘치는 위대한 민선지사로서의 사명을 완수도록 범도민적으로 돌돌 돌쳐 공동전선을 펴서 승리로 이끌어주시길 역사적 소명감으로 제창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제가 당선된다면 우리 제주도 5천년 만고의 탐라풍상의 설움! 4.3의 한! 그리고 감골문제를 사생결단내어 해결하는 등등! 관광비와 새로운 카드 제시! 찬란한 세계중심적 교류형성! 문자 그대로 관제가 만곡하는 보물섬으로 서의 전환!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경제부흥 등등! 참으로 멋있는 제주기적을 창조할 야생마 독수리 申斗完(신두완)을 압도적으로 밀어주시고 당선시켜줌으로써만이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유명해지고 그 위대한 영광은 또다시 도민전체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자신있게 갈파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면서 이만 인사로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5월23일

전민권당 사무총장 申斗完

제주대발전엔 전력투구

이상과 같이 저의 출마선언은 소신과 힘이며 '나의 정치철학을 청년학도들에게 일구어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대학교 모든 교수님, 직원님, 그리고 백만학도에 앞장서는 위대한 제주대학교 대학생여러분! 여러분들의 절대한 성원과 파워속에서 당선이 되면 우리 제주 51만 범도민적 숙원사항인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신설과 부속 병원병설문제를 나는 제1안 우선처리로 해결하고자 맡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부로 하여금 결정 인가 직전 무산된 것이 범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초래케 된 것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는 제가 당선되면 말끔히 해소할 자신과 공약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을 굳게 밝히두는 바입니다.

둘째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최근에 와서 급격히 발전되는 양상에 비해서 제주대는 타도에 아주 뒤떨어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는 오직 정부당국의 책임소재임이 분명합니다. 국립대학교로서의 면모를 원천적으로 확립하려면 뭐니뭐니하여도 철학과목 즉 철학대학 또는 철학부를 당연히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 신념으로 적극 추진하는 데 힘을 쓸 결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대학교의 위상과 특히 일류대학으로 육성·강화하는 데 절대적인 요체는 대학교내 체육시설확충! 충분한 재정지원이 긴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대대적인 뒷바침을 얻어내는데 혼신의 땀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남달리 파악하고 관심을 쏟고 있는 나로서는 하나의 주어진 사명감으로 밀어부칠 결심입니다!

셋째 우리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농출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열정속에서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끌어내어 전국에서 양적 질적으로 제일가는 현대식 과학기술원마와 실습을 통한 농업진흥분야에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가는 농과대학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는 데 전력투구할 결심이며 반드시 실행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대한 제주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무소속후보 제주도지사 申斗完(신두완) 씬.

개교43주년, 창간4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영대학원 제6기 최고경영자과정

△회장 康共弼 △수석부회장 康成昱 △부회장 姜聲任 玄官植 朴英順 高壽天 吳昌好 △총무 金秉湖 △재무 金漢信 △간사 高泰河 金泰文 △감사 康鍾哲 외 58명 원생일동.

■신입생들이 말하는 1학기생활

대출·커닝... 일부 선배들이 부추켜

바람직한 학교생활 알려줄 수 있는 기회 많이 만들어야

고등학교때까지 오직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것을 걸었던 새내기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무척 궁금한 점 중의 하나다. 새내기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쯤 1학년 반년을 보내면서 많은 고민과 실망과 반성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대학 1학기를 보낸 새내기들이 대학에 대해 느낀점은, 무엇이든 새내기들 눈에 비친 잘못된 점과 새내기로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새내기끼리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강의: 대학생활 중에 가장 중심이 돼야 할 것이 곧 강의이다. 그러나 강의가 학년 고하를 막론하고 학우들의 관심밖에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높은 기대를 갖고 열의가 아직 식지 않은 새내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일부 선배들의 잘못된 이런 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몇가지 들어보자.

첫째, 주위의 영향도 적지 않다. 일부 선배들은 "1학년때는 놀아도 괜찮아, 벌써 강의를 열심히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로 오히려 강의를 받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새내기들에게 비효는 식의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 선배들이야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쉽게 얘기를 했지만 책임없이 내뱉는 말들의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와 가깝게 접하고

있는 메스컴의 영향도 무시할수 없는게 보통 TV에는 교수 눈을 피해 대리출석을 부탁해 강의를 빠지면서 놀러다니는 것이 '스릴(?)'있는 장면으로 주로 미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일종의 '억압에서 갑자기 풀려버린 자유'라고 표현할수 있다.

수업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아야 하고 한 시간이라도 빠지는 일이 있거나 수업시간에 주위를 산만하게 하거나 조는 경우가 있으면 선생님께서 회피계 꾸중을 들든 고등학교때에 비해 어느정도 자유로운 곳이 대학이다. 그런 자유에 대해 밖으로 어느정도 표출하고 싶었다는 식이다.

즉, 강의를 받지 않는다고 출석 체크를 꼬박꼬박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일까? 뭔가 다른 방식일거라 기대했는데 일부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수들이 대학강의를 단지 고등학교때까지 해 오던 주입식으로 진행하고 교수들의 강의준비 소홀 역시 무시할수 없다. 이런 문제에

따라 새내기들이 느끼는 개선책으로는 학생들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식의 강의를 해 보고자 하는 교수가 있어도 강의 받는 학생들이 이에 따라오지 못할 경우도 고려해 봐야 한다.



참석자: 김민찬(국문), 김영범(해토공), 김용순(농화학), 김지연(화학), 고동우(사교), 고봉수(경영), 유은주(화학), 조승만(전자공)

장소: 본사 편집국

일시: 95년 6월 5일 오후 5시

사회·정리: 강준승기자

▲학과생활: 대학에 처음 들어와 처음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학과 동료 및 선배들이다. 그만큼 새내기들에게 동료나 선배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여러모로 친숙해질 수 밖에 없는 사이이다. 그러나 요

여기서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M·T의 경우에는 선배들과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지만 체육대회와 경주는 어느 정도의 경기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대박부터 몇몇 선배들이 옆에 앉아서 술을 먹고 새내기들의 뒷은 옆에서 선배들 시중을 듣거나 청소를 도맡아 하는게 고작이어서 학과행사에 되도록이면 참여하기를 꺼리게 된다고 한다.

또한 대학생이라면 가볍게 잔디밭이나 술자리에서 서넛만 모이면 사회 여러 전반적인 문제나 문학, 사상 등에 관한 활발한 토의가 있어 새내기로서 그런 면들을 배워보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하고 노는 것으로만 쉽게 이풀어 주고 쉽게 이끌려 다닌것 같다는 의견이다. 학문에 심취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학과내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의 여러가지 학과행사를 단순히 노는 방향으로 이끌지 말고 뭔가 하나는 얻을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시험과 레포트: 대학이란 자유로운 곳에서 시험과 레포트는 일종의 율가미쯤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신의 공부를 평가하고 분발하려는 시점에서 시험과 레포트의 새로운 재인식은 새내기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본다.

책임이나 강의실 밖에 쓰는 식에서 더 나아가 축소 복사하는 등 갖가지 커닝법, 선배들이 갖고 있던 일명 '죽보'에서 시작해 갖가지 시험정보들을 건지려는 여러가지 모습들, 이러한 모든 것이 시험기간에 나타나는 우리대학 캠퍼스의 모습이다.

새내기들이 중간고사 후에 받은 느낌은 커닝을 하지 않은 사람만 바보가 된다는 점이다. 고등학교때까지만 해도 커닝을 할때 약간의

겁이라도 먹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나 대학때는 자신이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당연시 한다는 것이다. 또한 TV에서 커닝하는 장면을 너무 미화시키는 듯한 면까지 있어 더 부추기는 영향까지 준다.

레포트의 경우도, 일부 교수들이 지난해에 했던 같은 주제의 레포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배들이 썼던 레포트를 걸장만 바꿔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교수들의 레포트를 읽지 않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옆에서 그런 일을 도와주는 선배도 문제라니와 교수들의 태도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레포트 주제선정시에 어느정도 고민을 할 수 있는 주제로 많은 분량 보다는 교수들이 전보다 읽어볼 수 있는 분량으로 내는 것이 적당하리라 본다. 막연히 배끼기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모름지기 대학시험과 레포트는 단지 평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응용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 연구실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도서관 열람실에서 한 주제에 깊이 빠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동아리: 요즘 새내기들이 선호하는 동아리는 취미나 학술동아리이다. 그 외에 봉사동아리나 운동 동아리는 젊은 동아리는 처음부터 거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고등학교때 학생들이 데모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부 새내기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 동아리는 어느때보다 새내기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다. 새내기들은 대부분이 공감시간을 이용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 동아리를 선택 한다고 말한다.

▲축제: 대학 오기전에 가장 많은

환상을 가졌던 점이 대학축제였다. 그러나 또한 가장 실망을 크게 했던 분야도 축제이다. 단지 분관건물이나 백두관을 둘러싼 먹거리들만이 생형했던 축제, 오히려 장소를 그렇게 좁히는 것보다는 단대마다 단체특성을 살려 축제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우리대학 캠퍼스가 크다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M·T: 선배들과 새내기들이 가장 많이 친해질 수 있는 자리였다. 밤새도록 선배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점과 극기훈련을 통해 약간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점이 좋았다고 새내기들은 이야기한다. 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지만 선배들이나 새내기들이 지루함을 표현함으로써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방 끝내 버리는 식이었다고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선배들이 술을 먹지로 권하는 모습은 오히려 안좋은 면으로 보인 점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점이다.

한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우리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주최로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는데 타대학에 비해 너무 미비하다는 점이다. 타대학의 경우는 2박3일 정도로 장소를 지정해 합숙까지 하면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대학의 경우는 설사 오리엔테이션에 참여 했더라도 얻은 게 별로 없는 형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학교측에서 개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미비때문에 새내기들은 학기초에 선배들이 학과행사나 대학내에 여러가지 일을 알려주는 강연회들을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고 특히 몇몇 학우들만 몰려다니는 모습이 특히 새내기들에게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면은 꼭듬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자체해결해야 한다.



■교수동정

지난 2월28일 퇴임한 정공훈(어업학과)·손대준(수전교수)가 5월9일자로 우리대학교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고경환(영어영문학과), 한삼인(법학과), 좌종근(전기공학)교수=지난 6월3일자로 학생기숙사 운영위원회 위원에 임명(임기:95년 6월3일~97년 6월2일)

▲신정철(기후연구소장, 사회학과)교수=지난 5월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 조선호텔에서 '세계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참석.

◆권인혁(사학과)교수, 한기

영(수)교수, 고창석(수)교수, 양영웅(수)교수, 박찬문(수)교수, 진영일(수)교수, 이청규(수)교수=한국고고학회 주최로 지난 5월26일부터 29일까지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전국역사학회에서 참가.

▲이상봉(회계학과)교수, 장원석(국민윤리교육과)교수=지난 6월3일자로 학생기숙사 감사에 임명(임기:95년 6월3일~97년 6월2일)

▲최규일(국어교육과)교수=지난 5월27·28일 양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전국국어국문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정기총회 임원개선에서 지역이사로 선출.

▲김중계(방송언어연구교수

장 축산학과)교수=지난 6월2·3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세미나 참석.

▲김규일(축산학과)교수=오는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제주마mtDNA에 관한 공동연구에 참여.

▲김수현(공과대학장 식품공학)교수, 하진환(수)교수=지난 6월2일부터 4일까지 한국영양식량학회 주최로 계명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영양식량학회에 참석.

▲조성운(사회학과)부교수=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주최로 지난 5월26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사회학회세미나에 참석.

▲오윤근(해양환경공학과)부교수=지난 6월2일 국립환경연구원 주최로 서울국립환경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23회 세계환경의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

▲현해남(농화학과)교수=오는 95년 7월15일부터 96년

7월14일까지 슬러지처리 토양에서 오염물질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및 연안문화재단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과

▲안기중(정보공학과)교수=지난 6월1일부터 3일까지, 한국정보문화센터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정보문화상 시상식에 참여.

■발간소식

『탐라문화』 제15호

『제주 배신안...』 등 다뤄 탐라문화연구소(소장 김영화)가 6월3일자로 '탐라문화' 제15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탐라문화』 제15호는 '제주도민의 배신'을 주제로 한 논문 △제주도 배신화와 신앙의 연구(현종준교수·현충환등문) △제주도 방언의 어휘론적 연구(강영봉교수)등 5편과 제주문화를 주제로 한

논문 △현대문화와 제주문학(김영화교수) △한문학과 제주문학(소재영교수) △민요와 제주문학(김영돈박사) △설화와 제주문학(현길영교수)등 모두 9편이 실려있다.

『RHODES』 발간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학생 모임(이하 진학모 의장 고승남)이 5월24일 『RHODES』 제1호를 발간했다.

지난해 발간된 창간호에 이어 두번째 발간되는 이번 호에는 △95년 진학모 총선선(문영위) △95년 정세전망(조지국) △기획특집-지자체, 아!광복 50, 분단50! △체현-95 한총련 출범식을 다녀오고(신임희) 등 95 총선(창)등 13편이 실려 있다.

『공연·전시』 '하늘하나 땅하나' 공연 사학과 노래마을(분과장 서

신아·3)주최로 제5회 정기공연 '하늘하나 땅하나'가 6월7일 법

정대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에서 분과원 22명은 창작곡 '그런세상'을 비롯 통일을 주제로 한 '통일이 그리워', '철망 앞에서', '한강'등 모두 13곡을 선보였다.

『초청강연』 '제주 비바리...' 주제로 총여학생회(회장 이봉실)는 4월에서는 오는 9월 오후2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제주비바리의 세상살기'란 주제로 한

리뷰회(민예총 제주지부장)초청강연을 개최한다. '귀금속 공예의...' 주제 백승철씨 초청강연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정성수)부교수)주최, 백승철(귀금속연구소 소장)초청강연회가 지난 6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공과대 산업디



교외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지난 6월2일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외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정산장학재단 등 50개단체에서 4백1명에게 총 2억8천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사진)

자언학과 금속실기실에서 있었다. 이날 백승철씨는 '귀금속 공예의 사회적 전망'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기능성 음료의...』 주제 한대석씨 초청강연 식품공학과(학과장 하진환

교수) 주최, 한대석(한국식품과학연구원)실장 초청강연회가 지난 6월2일 방송언어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있었다. 이날 초청된 한대석실장은 '기능성 음료의 소재 및 제품'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여러분의 학력은 개인의 영광이고 학원의 발전이며 보람입니다.

외국어

TOEFL, TOEIC, IELTS, GRE, SAT, ACT, AP, A, ARC, ESP II,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분야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5 알리앙스 주관 시험

• DELF·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분야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유학 상담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 에서 직접하세요.

'95 가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국제학교

[세제 100여개국에 1000여명의 언어강사]

30文語學院

• 신원통고시원(878-0166-9)

韓致司法行政研修院

• 신원통고시원(874-3011-4)

• 노원동(813-6004, 817-8366)

합력은 개인의 영광이고 학원의 발전이며 보람입니다!

육서당 한국고시학원

• 서울: 노원동전철역(813-6004, 817-8366, 816-8167) • 부산: 부산동(818-6526)

• 수원: 수원역(817-2446, 2445) • 대전: 충남도청앞(817-253-9642)

• 목서당(부산): (서울)817-6007, (수원)251-2447, (대구)425-4637

(대전)253-6834, (부산)818-6527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만남은

알리앙스 프랑스에서

alliance française

'95.7·8월 학기개강: 7.3(월)

BEF I II, MA I II, NSF I II III, AP, ARC, ESP II II,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분야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5 알리앙스 주관 시험

• DELF·DALF 시험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분야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유학 상담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 에서 직접하세요.

'95 가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의 국제학교

[세제 100여개국에 1000여명의 언어강사]

30文語學院

• 신원통고시원(878-0166-9)

韓致司法行政研修院

• 신원통고시원(874-3011-4)

• 노원동(813-6004, 817-8366)

군컴퓨터 O·A 병모집

육군참모총장위촉처

• 고졸이상 17~26세

• O·A 행정병 주특기부여

• 영장 본원수령단독임명

• 6주 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1월~12월 매월 입대

【접수중】

※유사학원주의 (구유니타자학원)

관인인성학원

분류 735-2323-9716

종로1가제일은행 본점 옆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 제대로 시키는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장을 기로 작정하신 분이려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각있는 사람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돌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만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내지 말고 좀 미리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이곳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 142기 수강생 모집

• 개 강: 1995. 7. 3

• 강 사 전: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월 75분 주 5일

• 반 편 성: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외국어능력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25년간을 오직 외국어교육의 외길만을 고집했음은 물론 연구하고 노력하는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영어·일어·불어·독어·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

종로 PAGODA (274)4000 / 압구정 PAGODA (3442)4000

신촌 PAGODA (362)4000 / 강남 PAGODA (501)4002

파고다외국어학원

외국어교육관 하계특강 실시

7월3일부터 영어·독일어·중국어등 17개강좌

외국어교육관(관장 양경주 영어영문학과교수)에서는 7월3일부터 8월11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영어 TOEIC·TOEFL, 독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에 대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하계특강과 더불어 외국어교육관에서는 Sound Library 2개실을 오는 7월3일부터 개관할 예정이며 이를 학생들을 위해 개방한다. 또한 강의가 없는 시간에 개방한다.

이번 특강은 아침반 1·2, 저녁반으로 나뉘는데 시간과 강좌명은 다음과 같다.

▲아침반1(오전8시~9시30분)=△Family Album U.S.A. △TOEFL Structure & Written Expression(Academy TOEFL) △TOEFL Reading Comprehension(Academy TOEFL) △생활동일어

▲아침반2=△TOEIC Listening Comprehension(오전9시40분~11시10분) △TOEFL Listening Comprehension() △Focus on Business() △

TOEFL Structure & Written Expression() △영어순회() △중국어 I(오전9시40분~10시40분) △중국어 II(오전10시50분~11시50분)

▲저녁반(오후5시~6시30분)=△Family Album U.S.A. △Focus on Business △TOEFL Structure & Written Expression △TOEFL Read-

ing Comprehension 한편 수강신청접수는 6월17일까지 외국어교육관 행정실로 하면 되고, 수강료는 영어·독일어=3만원, 중국어=2만원이다.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대학 해양환경공학과 학우들은 시내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중소기업의 품질...” 주제 산학연 세미나 개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제주 지역 컨소시엄본부 주최로 제3회 특별세미나가 오는 6월8일(목요일)오후2시부터 우리대학 공과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QM(품질경영)의 의의(김원경 한국 품질보증원 원장) △물류관리 개선방안(김정환 (사)한국 물류관리협회 전무이사) 등 2편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2학기에 교수 17명 신규채용

중문과 등 16개학과

교무처(처장 김병국 경영학과 교수)는 제2학기 전임교원 17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교무처에 의하면 △93~95 신설학과 △95학년도 1학기 모집분야 중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한 전공분야 △전임교원 유고에 따른 해당 전공분야 △전임교원 담당시수가 과

다하여 수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과 △시간강사 의존율이 높은 학과 등을 중심으로 교수공채가 이루어진다.

응모자격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단, 서양화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함)로서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이력서 1부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 1부 △연구실적물(최종 학위논문 1부, 91년 6월1일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 원본 1부) 등이다.

채용분야는 ▲중어중문학과(중국어문법, 중문학) ▲사학과(한국사-지역사 강의 가능한 자) ▲미술학과(서양화) ▲법학과(민법 및 국제사법) ▲경영학과(재무관리) ▲관광경영학과(관광사업론-관광영어회화 강의 가능한 자) ▲사회교육과(도시지리학-GIS강의 가능한 자) ▲수학교육과(위상수학) ▲컴퓨터교육과(운영체제) ▲해양학과(해저생물학) ▲수학과(해석학) ▲전산통계학과(Data Base) ▲정보공학과(Pattern Recognition) ▲전기공학과(계측이론 및 응용) ▲화학공학과(무기공업화학) 등이다.

속기관 직원 △농대조교모임 △대의원과 △경영학과를 비롯 10여개 학과 등이다.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에서는 지난 2일 김충완학우를 위해 모금한 성금 400여만원을 농학대에 전달했다.

헌혈증 6백여개·250여만원전달

농학과, 김충완 돕기운동에 많은 학우 참여 바라

금성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김충완(농학3)학우를 살리기 위한 헌혈증과 성금모이기운동이 많은 학우들의 참여속에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회장 김두진)에서 성금 40여만원을 모금, 농학대에 전달한데 이어 농과대학 교수와 교직원들 비로 여러 학과에서도 성금과 헌혈증들을 모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학과(회장 고정민3)는 지금까지 교직원, 학생들이 모은 약2백50만원의 성금과 헌혈증

6백여개 중에 2백여개를 지난 5일 헌혈측에 전달했다.

이와관련 농학과에 따르면 “김학우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있고 서울에 있는 타대학 학생들로부터 수혈을 받아 오고 있다”며 “여름방학 기간중에 혈소판을 기증해줄 학우들이 필요하다”며 우리학교 학우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김학우를 돕기 위해 성금모금에 참여한 단체는 △농학과 교수 △농과대학 학장 △농대 행정실 및 부

환경캠페인 벌여 해양환경공

해양환경공학과(회장 장용식3)에서는 '제23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9일까지 환경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시내가두캠페인은 시민들의 환경문제 고취를 목적으로 환경오염실태·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을 직접 견학해 찍은 사진들과 수질오염 대기오염과 관련된 비디오상영등의 행사를 선보였고 모두 3개조로 나누어 시청-탐동-시청을 경로로 이루어졌다.

한편 백두관 앞마당과 로비에서 열린 학술제에서는 시내가두캠페인에서 선보였던 사진과 비디오상영을 학우들 대상으로 가질 예정이다.

또한 심재근(환경부 수질보존 국장)을 강사로 초청, '96년도 한국수질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졸업생을 초청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7개국립대 노조 파업에 돌입

공동협상등 요구... 7차 교섭권 서울대에 위임

우리대학을 포함한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국립대 95단체 임금투쟁 공동본부(이하 전대노련)가 지난 19일 정발생산고를 낸데 이어 6월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5월30일 대전 한남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5차 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대학노련에 따르면 4차협상에서 7개대학본부가 5차협상부터는 공동협상에 응하기로 합의해 놓고, 5·6차협상에서 우리대학을 비롯한 몇개 대학측이 노조측과 개별교섭할 것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5차 협상에서는 노조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단체협약안은 조합활동, 인사,

단체교섭 등 노조활동전반에 관한 내용과 임금협상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조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대학 기성회비 예산 중 55.15%가 우리대학교 교수, 직원, 기성회 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수 및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에게 각종의 명목으로 수당이 약 47%가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 약 8%만이 기성회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총무과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마다 개별적 특성, 지역별 특성이 다른데 공동교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근무형태, 임금체계 등 국립대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객관적 차이와 조건은 같지만 각 노동조합들이 지역별로 학교별로 흩어져 있을 뿐”이라며 “우리의 요구안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대학을 포함 6월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전대노련은 파업기간 중에도 계속 교섭한다는 원칙하에 7차 단체교섭권을 서울대 노조측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노련은 6월8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7차 협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근무복귀 및 파업의 계속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협상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발전기금 2백14만원 기탁

지난 26일 사대부고 재직동문 34명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 재직중인 동문 34명은 지난 5월26일 우리대학에 발전기금으로 2백14만원을 기탁했다.

사대부고 양봉규(법학과 61년출)교장은 기금전달과 관련 “타지방에서도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대학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시점에 도내에 있는 동문들이 발전기금을 모아 모교에

기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모교에서 펼치고 있는 발전기금 모금 운동에 여러 동문이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대부고 재직 동문은 지난 14일 제주MBC재직 동문회 3백5만원, 20일 도내 농협 재직 동문회 6백38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세번째로 우리대학 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우리대학을 포함한 전대노련은 6차협상이 결렬되자 학교당국이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무식한 망언

와타나베 미치오 전일본외상의 “한일합방은 무력으로 되지 않았으며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근본적 역사인식도 못하는 무식한 망언으로 애국심에 넘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흥분케 했다.

망언에 항의해 지난 6일 서충현 소속 대학생들이 일본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진일은 응분의 처사요.

치매증상처럼 가끔씩 심각한 정신적 불구상태를 보이는 일본정치가들, 이래도 제정신을 못차리겠소?

○...제 밭그릇 찾기

제 밭그릇마저 빼앗겨도 기뻐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소서.

법정대 중강당에서 실시하는 대대위 강의가 갖가지 공연, 강연등의 행사로

과연, 국민의 뜻인가

○...최대다수 최대행복(?)

과필강의 해소책으로 몇몇 과목에 대해 수강생을 1백20명 단위로 사전분반해 수강신청 받는 것은 아주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되오나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해 학생들과 담당교수만 골방먹고 있다고.

학생들은 수강신청시 교수들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수들은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여 1백20명이 넘으면 승

인을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학생과 교수는 이에 대한 불편이 많다.

대학당국에서는 소수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단순한(?) 방법 말고 하루빨리 수강신청제도를 전산화 망으로 바꾸었으면 하오!

○...나의 생각은 곧 국민의 생각(?)

자신들의 생각이 모든 국민의 의견인듯 착각하고 계산 분들에게 아라지 한마디 하고 싶어.

지난 4일 모종양일간지는 1면 머릿기사로 '법집행에 성역 있다, 불법방치 이대론 안된다'라는 표제를 뽑고 국민들이 짜증을 내며 경찰의 강경한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글짓기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공개토론회 해보

는게 좋을 듯.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증거 한번 대보시길.

언론사령은 사실을 진실되게 보도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극우보수신문들이여, 더 이상 국민의 의식을 좀먹게 하지 말라.

개교43주년, 창간4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술반

강문필 강성수 강영태 강재홍 고만권 고성돈 고창효 김광선 김덕송 김두진 김수광 김영희 김창범 김태겸 송양필 양남호 양민웅 양윤경 오홍부 장덕현 진창효 한명조

원예특작반

강상훈 강태영 고동일 김민식 김상원 김석찬 김세중 김태하 김한석 양복성 양부경 이남희 이성수 임기두 허 학

축산반

강순배 강중현 강현진 고성남 김성중 김영훈 김홍천 문세철 송성준 이창하 한정섭 현대영 홍창운

어업반

강수일 고정범 김시준 문태언 송호종 이광임 한범창 한석부

<총22명>

<총15명>

<총13명>

<총10명>

제1기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 원생명단

■제15회 백록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혜원에게 집을 나왔다. 방을 구하고 짐을 옮기면서 집을 나온 게 잦한 건지 아닌지 타진해 보려는 마음은 없었다. 자유로웠다. 그 기분, 부모님께 때때 2박3일의 배낭여행을 얻어낸 것처럼. 한편으로는 막 첫 출정을 앞둔 병사가 고향 뒷마루에 앉아 군화의 끈을 매는 그 손,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설레이는 그 손처럼 짐작들을 들어 나르는 내 손은 아련한 패감으로 떨릴 지경이었다. 그들은, 아니 대부분이 떠나가버린 그 집에 남아 있는 내 혈육들은 마지막인 나를 그들의 년월머리나는 생활 속으로 구겨넣지 못해 안달이었다. 가난, 병, 빚, 술주정, 싸움, 가솔, 깨어진 유리창, 몇 번이나 부서져 잠글 수도 없는 문짝, 더러운 개수대, 냄새나는 재래식 변소, 흩어진 화단... 이 모든 것들이 똥똥그려진 '년월머리' 속에서 나는 이십여년 동안 한 무늬로 섞이지 못한 채 구겨져 온 것이다. 뭐 특별히 불행하다는 생각은 없었다. 내일이면 종비박산이 될 것만 같으면서도(그걸 예상하며 하루하루 지낸다는 건 정말 몸서리치는 거였다.) 자고나면 멀쩡히 어제와 같은 일상이 다시 이어지고, 그런 불안 속에서 심대를 보낸다는 상당히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은 없었다. 다만 그 시기, 감수성이 예민해져 쓸데없이 자기연민을 썩어우린 그 시기에 창가에 심어는 향나무를 볼 들고 물기 적적한 소리로 '향나무야 향나무야...'하고 주문을 걸어보는 유치한 버릇을 갖고 있었긴 하다. 종비박산은 오랜 기다림(?) 끝에 어느날 갑자기 찾아 들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그 무렵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어느덧 무심한 성격이 자리잡고 있어서(나는 거의 골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걸 좋아했기보다는 아무런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이 없었으므로. 그럼, 고압한 사유를 키우고 있었느냐 하면 난 그저 죄없는 젊음만 하나씩 하나씩 장년살아 지워버리고 있었다고나 할까) 그 난리를 마치 강너머 불구경하듯 관망할 수 있었다. 학생처럼. 그렇다. 그즈음 가족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막까지 멀종멀종 학생처럼 굴고 있는 나를 그들은 가늘게 뜬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대문을 닫아 나오면서 나는 내 나이만큼이나 늙은(?) 향나무에게 홀짝 일별을 던졌을 뿐이다. '향나무야 향나무야, 너하고는 이별이구나. 이제 나는 성장의 시간동안, 네 안, 그 칙칙한 비늘 속에 파리를 틀어박혀 무척감과 우울을 어떻게든 해버려야 할 것 같다. 떠남은 '출구'를 위해 선택한 하나의 의식을 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났다. 아니 갑

자기라기보다 그 소리는 감지권 밖에서 서서히 원을 그리면서 청신경 안으로 스며들어 왔을 터였다. 드럭 떠당 떠당 떠리리리... 그 소리는 일관된 음색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간간이 들리는 것이어서 오히려 청각을 자극시켰다. 나는 아까부터 잠을 못이루고 있었다. 수면의 경계선에서 잠은 그 안과 바깥을 넘나들며 불안스레 출타하고 있는 것이다. 오래 생기는 이사는 첫날의 불면증인가. 나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귀를 모으었다. 소리의 진동음은 천장의 대각선 양끝에 뚫려있는 두 개의 환풍구에서 나는 것이다. 두 개의 환풍구, 그건 방과 방 사이, 혹은 방

생성되고 있었다. 어느새 잠은 말끔히 달아나 버렸다. 사위는 김정, 그 자체여서 눈을 떠도 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눈을 깜빡여 본다. 그래도 내 앞은 검은 평면일 뿐, 어떠한 입체의 공간도 지각할 수 없었다. 지하방을 소개받으면서 나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했다. 창문이 없다는 것. 그 점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를 놀라게 했다. 그 놀람의 저변에는 모든 방에는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리라. 글썽 창문이란 출구일까 입구일까. 햇빛이 들라고 만든 것일까 불빛이 새어나가라고 생긴 것일까. 아니면 갇혔다는 심정에서

사면의 벽이 스스로 제 견고한 몸을 드러내었다. 나는 결박된 듯 몸을 움츠렸다. 왜 갑자기 그 창이 감옥의 배식구처럼 보일까. 마치 구원의 열쇠를 쥔 완강한 주먹처럼. 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목욕탕에서 한 동안(童顔)의 얼굴과 부딪쳤다. 이사오고 입주일동안 불면에 시달린 나는 늦잠을 자는게 일수였고 주유소에 늦지않으려고 급기야는 그날 아침, 허둥지둥 목욕탕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뻔뻔히 나오는 얼굴, 채 물기도 닿지 않아 앞머리칼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나이는 나보다 서너 살 아래일까.

유리병, 그안쪽으로 난 출구로 들어가기



현 은 정 <국어교육과>

의 공기와 유일하게 통하는 통로이다. 방금의 소음은 아마도 어느 방에서 나는 것이 환풍구를 타고 흘러들어온 것일게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낯선 이물감, 구슬들이 서로 맞부딪치며 굴러가는 것 같은, 어느 순간에는 하수구로 개수물이 흐르는 것처럼, 혹은 늪은 천식환자의 기관지 속에서 그림처럼리는 것처럼 그 기괴하고 음습한 음향은 시시각각 다르게 계속 환풍구를 통해

벗어나게 해주는 심리적 보조물인가. 닫힌 창문을 보며쯤으로써 밀폐의 의사를 나타낸다고. 아니지 그냥 맛있다고 달아놓는 것이겠지. 쿵쿵... 나는 무슨 생각을 이 따위로 하나. 그때 한 화면이 켜졌다고 느꼈다. 그것은 점점한 영화관에서 영사기를 돌렸을 때 첫 화면이 떠오르는 순간과 닮았다. 실은 꼭 라면박스만한 환기창으로 복도의 불빛이 새들어온 것이다. 그 희미 한 불빛에 지하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마, 가수 박학기를 닮았네. '박학기를 닮은 얼굴'은 나를 한번 힐끗 보고는 문을 열어젖혔다. 손에 뭔가가 들려있다. 유리병... 열개가 켈린 넘어보이는, 종류가 다른 유리병들이 물기를 번들거리며 바구니 안에 담겨 있었다. "무거워보이는데, 좀 들어줄까요?" "..." '박학기를 닮은 얼굴'은 고개만 살짝

설레 흔들었다. 무뚝뚝하기는.

"저... 이 집에 햇빛아 드는 마당이 있나요?"

마담? 뒤돌아 있다고 들었다. 지하실 사감으로부터. '사감'이란 그녀의 자칭이다. 주인집 애들의 이모라는 그 아주머니는 일곱의 방 중 세를 낸 세 개의 방 가운데 하나에 세를 들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에게서는 나이답지 않게 화류계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항상 손에 들고있는 성경책과 그녀의 천진한 표정을 보면서 나는 이런 느낌이 편견일거라고 회의하곤 했지만 그녀의 기호품들, 술, 담배, 전자주석의 루즈와 감촉들이 유난히도 긴 그 징그러운 수개가 조합해서 나오는 연상이란 그렇고 그런 것일 수밖에 없었다.

'사감'은 내가 예약할 방의 창문에 대해서 조금의 불만을 표시하자 그래도 뒤돌아 있는걸요하고는 마치 부엌이 있는걸요하고 대답한 것처럼 대변 뿌듯한 표정을 지어냈다(부엌을 쓸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큰 흠이었다). 창문이 없지만 뒤돌아 있다. 글썽 나는 그 말이 아귀가 안맞는 무슨 화두처럼 느껴져서 고개를 가우뚱거렸지만 사내째 철철이 만원이라는 점과 대중 내 몸중어리를 구겨낼 수 있겠다 싶어 대뜸 낙찰을 보았던 것이다.

'박학기를 닮은 얼굴'은 역시 고맙다는 말도 없이 유리병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는 내가 어렵직작하여 가리킨 복도 끝의 샷시문을 향해 등을 보이면서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큰 보폭에 어울리지 않게 바짓단이 무릎까지 건어 올려진 종이아가 매우 위대하게 보인다. 이상한 녀석이로군. 유리병들은 어디에 다 쓰러는걸까. 근대 언뜻 봐서 성을 판별할 수 없다. 유니섹스 추종자라도 되나? 이렇게 대동맞은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 그가 사라진 어둑한 복도 저쪽을 멀거니 응시했다. 마치 그에게 복도를 걷고 있거나 한 것처럼. 묘하게도 나는 그에게 저 껌껌한 복도의 문을 통해 어디로 들어가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을 하면서 복도를 걷고 있는 그의 잔상을 뇌리에서 떠나보내지 못한채 한동안 멍청히 서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와보니 어느덧 열한시가 가까워 있다. 손발을 닦고 늦은 저녁으로 뽕조끼라라도 씌고나니 자정. 아침에 빠져나온 그대로 동굴같이 구멍이 패인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다. 예의 옆방에서 그 이상한 소음이 들려온다. 그 애는 지금 뭘하고 있나. 잠이 안 온다. 뭐 할게 없나. 며칠 전 서점을 지나다 순전히 제목만 보고 산 단편집을 꺼내든다. 윤대녕, '은어늬시통신'. 표지 안에는 적목하고 있는 듯한, 약간 선병직적으로 보이는 작가의 얼굴이 보인다. 읽다 말았는 지 두께의 반쯤에서 책장이 접혀있다.

'아, 스스로의 출구를 선택할 수도 없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허수의 시간,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벗어나 아가 우주로 사라져버린 그애. 그런 다음에 또다른 블랙 홀을 통해 우주로 방출돼버린...'

스스로의 출구를 선택할 수도 없이, 줄이 그려진 문구에서 내 시선이 박혔다. 붉은 사인펜으로 짙게, 거의 신경질적으로 그려져 활자의 밑받침들이 잉크에 거의 가려져 있다. 나는 소설의 앞서 읽었던 부분을 반추해보려고 했지만 무슨 편집중환자처럼 자꾸만 '출구'라는 단어가 켜졌다. 출구라... 왜 그 어휘에 집착을 하는 걸까. 옆방의 소음은 자꾸

만 볼륨이 커 저간다. 나는 무엇을 도저히 못견디는 걸까. 소음은 컷바퀴를 타고 웅웅 요동을 치는 것만 같다. 나는 책을 덮고 이불을 히스테릭하게 들추어 내렸다.

네번째 노크를 했을 때에야 안에서 기척이 들리고 이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 들어서자 눈 앞에 펼쳐진 방 안 풍경에 나는 놀라움으로 긴장하기 시작했다. 사방 벽은 물감으로 도배를 했는지 온통 파란색 일색이고 천장에 가는 철사를 일일이 내려 유리병들을 매달아 놓고 있었다.

"조용을 하던 참이예요. 물로다가..."

말문이 막혀 서있는 내게 그애, '박학기를 닮은 얼굴'은 태연히 입을 연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유리막대를 집어서는 유리병 앞에서 팔을 한번 휘익하니 휘둘렀다. 그러자 순간 유리병들이 미세하게 떨리며 따라라라랑 하니 피아노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건반 위를 손가락이 달리는 것처럼 울렸다. 히죽웃는 그애를 보며 내 입이 열렸다.

"신기하네요. 방 안이"

"...불안한 자아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종의 노하우조."

나는 불·안·한·자·아 하고 특히 그 말을 주의하며 들었지만 언뜻 이해할 수 없었다. 그보다도 유리병들, 자세히 보니 그 모양이며 색깔이 신기했다. 길쭉한 것 작달막한 것, 북어처럼 배가 볼록한 것 납작한 것, 투명한 것에서부터 노란색, 올리브색, 짙은 커피색... 그 애는 내 시선을 좇으면서 말을 이었다.

"음음이는 병의 모양과 유리두께, 그리고 물높이에 달려있죠. 가령 좁고 길다란 것은 높고 짧은, 작고 체적이 큰 것은 낮고 울림이 깊은 소리를 내요. 색상이나 '명도가 음색과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글썽 투명한 것은 맑은데 이렇게 감광력이 첩첩히 있는 것들은 둔탁하게 낮게 울리죠..."

"특히를 내도 되겠네요, 흐흐."

"그래볼까요, 해해."

그렇게 한차례의 묘기대행진을 본 것 같이 기분이 몽롱해져 나는 내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다시 들어가 누웠다.

그날의 이상한 방문이후 우리, 그러니까 찬유와 나는 서로의 방을 들락거리며 친해졌다. 예를 들어 찬유는 내 첫 방문 다음날 새벽 자는 나를 깨우고는 심심한데 읽을 책을 빌려달라고 하고, 나는 그 며칠 후 책을 돌려 받을 핑계로 옆방의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그녀는 천장에 전시되어 있는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양주병들과는 달리 책상 서랍에서 오징어와 베리나인폴드 한 병을 꺼내 놓았다.

술이 익자 찬유는 유리막대를 양 손에 쥐고 내 앞에서 즉흥연주를 하기 시작했다. 뭐냐고 물으니가 그냥 '빛방울 협주곡'이라고 대답하면서 곡을 신청하라고 했다. 나는 한참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뮤직박스맨서'를 골랐다. 찬유는 신기하게도 곡의 음정을 정확하게 짚으며 유리병을 두드렸고 나는 그녀의 허리를 뒤에서 잡고 덩실덩실 댄스대로 춤을 추었다. 찬유와 나는 88라이트를 나눠 피웠다. 나는 속으로 치밀어오르는 딸꾹질과 현기증을 참아가면서 그녀가 불어주는 개비들을 사양도 않고 넘죽넘죽 받아 물었다. 나는 목안이 격격 막혀 오면서도 그녀에게 물었다.

(다음면에 계속)

시 부문 심사평

다섯명의 당선자 중 한 명의 수상자

이번 제15회 '백록문학상' 시 부문에 응모한 작품 수는 모두 145편이었다. 이 가운데 예심에 통과한 작품을 밝히면, 「시로미차를 마시며」의 4편을 낸 하정숙, 「검정구두의 생애」의 11편을 낸 고정미, 「이런 경험 후시」의 4편을 낸 진주연, 「나는 숲 속에 있습니다」의 29편을 낸 감지이, 「이발소」의 5편을 낸 김동완, 「숫구치 내리는 일사귀」의 4편을 낸 김이선, 「마담에서 밤하늘을 보다」의 4편을 낸 박미령, 「조각상」의 4편을 낸 김도균, 「황혼」의 6편을 낸 김영관, 「습관과 버린 오늘」의 4편을 낸 송상은, 「어느 봄날」의 9편을 낸 강우생 등 11명이 예심에 통과한 11명의 작품들을 놓고 우리 심사위원 두 사람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심 통과자가 11명이나 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응모작의 수준이 만만치 않음을 의미하거니와, 특히 고정미(국교3), 감지이(국교3), 김영관(국문2), 김도균(국문2) 송상은(국교3)의 작품은 대학생 수준을 넘어 기성문단에 내놔도 충분히 화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고정미 작품 가운데 「연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생과 사, 세계와 자아를 대비시키면서 보여준 든든한 사유의 폭이 놀라웠고, 감지이의 「나는 숲 속에 있습니다」는 지적 환상을 엮어내는 솜씨가 돋보였다. 그리고 김영관의 「황혼」이나 「즐거운 나날」은 언어의 질감을 고르면

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솜씨가 가히 일품이었으며, 김도균의 「조각상」은 외적대상을 묘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물을 창조하고 있었다. 우리 심사위원 두 사람은 고심 끝에 '제대신문사'에 타 분야에 당선작이 없다면 이들을 모두 당선작으로 뽑거나 두명만이라도 공동 당선작으로 뽑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소설이나 평론 분야 역시 당선작을 낼 만한 수준이라면서 규정대로 한 편만 뽑아 달라기에, 두 눈을 딱 감고 송상은의 「노오란 기억」을 뽑았다. 따라서 송상은은 다섯 명의 당선자 가운데 한사람의 수상자라고 말해야 좋을 것이다.

하지만 송상은의 당선은 결코 행운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하나의 작품에 이성과 감성은 물론 무의식까지 포괄하려는 자세라든가, 말(言語)이 사상을 지배하고, 또한 사물까지 변모시킨다는 언어철학적 자각을 비롯하여, 고정된 형식에 얽매지 않고 시상을 자유 자재로 풀어가는 솜씨가 다른 네 사람보다 돋보여 당선작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시대에 범람하는 해체시와 달리 전인성(全人性)내지 전체성(全體性)을 추구하는 자세 때문에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다.

당선자인 송상은은 아, '당선 아난, 당선자'로 위로하고 싶은 네 사람 모두 기회가 오면 한국 문단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더욱 정진하기바란다. (심사위원 강동원·윤석산)

소설·평론 심사평

소설 문장 유려하고 구조 탄탄한 수작 평론 해석력·논리성·설득력등 돋보여

우리가 읽은 소설 작품은 「황혼의 비가」, 「그루터기」, 「야행연습」, 「너도 밤나무 숲길에 관한 명상」, 「호텔 코스모스」, 「유리병, 그 안쪽으로 난 출구로 들어가기」 등 6편이다.

소설 작품을 읽고나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졌던 느낌은 모든 응모자들이 한결같이 진지한 자세로 소설쓰기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 진지한 자세만으로 제대로 된 소설 하고 완결된 소설 작품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제시대배경으로 한, 마음과 마음 사이의 대립과 마찰을 다루었는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더디어서 재미를 반감시킨다. 「야행연습」은, 주인공의 일상을 섬세하게 그리고는 있으나 극적인 상황보다는 평범한 일상 감각이 무뎠다. 「너도밤나무 숲길에 관한 명상」은, 대학생들의 고민을 소설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

에서 썩어진 작품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원높은 구조적 장치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호텔 코스모스」는, 문장이 세련되고 이야기를 끌고가는 힘이 감지하게 하는 작품이지만 작위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여 그것이 독자를 공감의 세계로 이끄는 데에 뚜렷한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선작으로 정한 「유리병, 그 안쪽으로 난 출구로 들어가기」는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단연 우수하다. 문장이 유려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탄탄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신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고뇌를 그린 이만한 작품에 당선작의 영예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문학평론 분야에 응모한 작품은 단 2편이다. 「작가의식의 숨은 그림 찾기」-김종삼-은 작품에 대한 해석과 논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그런데 「안팎에서 길들여지기 또는 그 중심의 괴로움-기형도론」은 단 두편의 응모라는 데에서 오는 우위를 단번에 불식시키는 우수한 작품이다. 작품에 대한 해석력이 뛰어나고 논리가 정연하며 설득력, 문장력도 갖추고 있다. 이점들은 우리가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정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심사위원 김영화·김병택)

■ 제15회 백록문학상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앞면에서 이어짐)

“이런 유치한 장난은 언제부터야?”

“유치해? 뭐가?”

“유리병...”

“훗... 그거? 아마 예닐곱 살... 아니 정확히는 우리 모친께서 어디가서 빠지지 않는 알코올중독자가 된 이후부터겠지. 뭐 집 안에 쌓이게 양주병 들어라서...”

찬유는 심드렁하게 대답하고는 방바닥에 길게 드러누웠다. 그리고는 팔을 뻗어서 나를 위해 자리를 만드는 시늉을 했다. 나는 무릎걸음으로 기어가 그녀 곁에 누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뭘 좀 물어봐도 될까?”

“뭘?”

“불안한 자아란 니 성장과 관련된 걸 아니?”

찬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글쎄 내게 성장이라 부를 만한 생활이 있었는지... 자라오는 동안 내 안과 내 밖은 견고하게 분리되어 있었지. 내 밖의 어떠한 대상도 내 안에 인지되지 못했다. 내 안에는 나와 내 어머니가 있었고, 그 밖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

“유년기의 자폐?”

“응? 어땠...?”

“너 혹시... 눈썹을 죄다 밀어버리고 속눈썹조차도 모두 뽑아버리거나 하는 그런 짓 안했어?”

찬유는 대담대신 킁킁하고 웃더니 내 머리통을 쥐어 박았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일깨워 주는 눈가의 잔주름을 나는 매우 건조하다고 느꼈다.

하루는 ‘사감’이 우리의 방을 노크하고는 예의 그 징그러운 개를 안고 진자주의 입술을 허죽거리며 환속했다. ‘이 방에서 웬 푸닥거리를 하나 했지’하며 ‘사감’은 찬유의 잔을 빼앗아 ‘나도 한잔’했던 것이다. 그즈음 그녀는 우리 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지 못해 안달이었다. 찬유와 나는 그녀의 기나긴 사설을 막는 방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죠’하고, 아마도 그 이후로 그녀의 ‘사감’노릇은 그녀의 두 조카아들에게나 행세했을 것이다.

우리의 교감, 찬유와 나는 그리 많은 대화를 했다고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왜 여기에 머물고 있으며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별다른 돈벌이를 하는 것까지는 않은데도 생활이 가능한 이유 등 기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단지 이 저쪽 출신이 아니고 모여대 철학과 2년을 중퇴했다는 것에 호감을 가졌고, 그녀는 내가 기쁨냄새나 잔뜩 풍기고 다니지만 밤마다 컴퓨터로 뭔가를 또까인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감은 서로의 결맞음 위에서 잔뜩 녹아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가끔 그녀의 얼굴 한 귀퉁이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어두운 표정을 불안스레 훑쳐볼 수 있었다.

비번인 날, 모처럼 밀린 빨래를 해치우느라 목욕탕에서 경강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내 엉덩이를 발로 툭 쳤다. 찬유였다. 그녀는 허를 났를터라 표 두장을 내밀었다.

“‘노·찾·시’ 공연이 있는데... 가자.”

해안가 공원에 위치한 야외음악장은 많은 인파로 들끓었다. 민중가요를 주로 불러 대박에서 인기를 모으는 그룹이고 마침 축제 기간에 맞추어진 공연이라 그런지 학생들로 거의 꽉차 지나갈 틈도 없을 지경이었다. 우리는 맨 구석자리에서 겨우 설 수 있었다.

열병이 넘어보이는 남녀들이 무대로 나와 열을 지었다. 공연이 막 시작되자 장안의 술렁임은 점차로 잦아들었다. 장내로 잠입하고도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경건하고 슬프게,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장난기 가득하게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그들은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부르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를 부르고, ‘그날이 오면’을 부르고... 곳곳에서 노래를 따라부르기 시작했다. 찬유도 따라 불렀다. 그녀는 철학서니 없게도 그들의 장난스런 율동을 ‘뽀뽀’의 유치원생들처럼 따라하고 있다. 나는 따라 부를 수가 없었다. 요즘은 누구나 대중가요처럼 익히는 그 노래들을 나는 예써 익히려 하지 않았었다. 왜 그랬을까. 그 노래들에 조용히 가슴이 격양된 청중들은 모두 서서 어깨동무를 하고 조금씩 조금씩 비틀거렸다. 그 모습을 마치 달빛을 받은 바닷물이 은근하게 출렁이는 것같은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맨 뒤에서 지켜보았다.

공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삼삼오오로 흩어져 공원잔디밭에 둘러앉아 술자리를 벌이거나 해안가를 걸으면서 산책을 했다. 우리는 방과제가 보이는 곳을 골라 신문지를 펼쳤다. 방과제 끝에서 등

대불빛이 컴컴한 바다를 비추고 있는 것을 나는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불빛 밖에 있는 바다는 오히려 더욱 검어보였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어?”

언제 사왔는지 찬유는 맥주강통을 따서 내게 건네면서 물었다. 나는 잠시 우물거리다가 맥주 한 모금을 들이켰다.

“니 생각, 잠전에 노래를 따라부르며 즐거워하는 너와 방 안에 처박혀 유리병 유희나 즐기는 니 모습을...”

“...”

찬유는 어느새 채 강통을 따서 반쯤 되는 양을 입에다 털어넣었다.

“아까와 같은 분위기... 아니 대학초년기에 누구나가 으레 거처지 되는 세례, 나도 그 세례를 피해야 할 수 없었어. 민중, 반미, 계급, 신념과 실천... 이러한 말들, 노동해방이다 여성해방이다하는 이러한 말들, 내 밖에 존재했던 말들, 나는 내 안에 아무 것도 들어놓지 않고 지내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온거다. 그들에겐 삶이란 하나의 목표였어. 굶은 것을 바르고 개혁하고 완성한 삶이란 의지로 풀뚝 뚫쳐진 지고한 거였지.”

찬유는 맥주가 비었는지 강통을 으스러뜨리고는 바다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그녀는 벌써 얼굴이 취기가 도는 것 같았다.

“내게서 삶이란 그냥 살아가는 그 이상도 이하의 것도 아니었다. 삶의 방향이란 애초에 없었고 그다지 필요해하지도 않았고... 나는 불안했지, 그들에게 안내받으면서 돌아본 내 안, 나와 내 엄마 밖에는 없는, 텅빈 내 안의 풍경이.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이 점점 황량해져 가는 것 같았어. 그들과 같이질 수는 없었으므로...”

나는 찬유가 말을 맺는 동안 빈 강통들을 광강하고 부딪치며 말없이 앉아

기척도 없다. 생각해보니 앓는 동안 찬유는 한번도 들르지 않았다. ‘사감’에게 물어볼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찬유의 어두운 표정이 섬광처럼 내 눈 앞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어디 여행이라든 갔겠지...

찬유가 내 방문을 두드린 것은 그로부터 사흘뒤 자정쯤이었다. 나는 신문을 보다가 대구의 가스폭발사건이 대문짝만하게 난 것을 보고 아, 하고 입을 벌린 채 시종 놀란 표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만취한 채 비를 맞았는지 흠뻑 젖은 머리를 내 방 안으로 들이민 것이다.

“내 참, 어디 갔다가 이 꼴로 왔도...”

찬유는 비를거리면서 한쪽으로 꺼겨는 이불 겹으로 기어가 꼬꾸라졌다. 나는 잠시 무슨 말인가 더 이르러다 말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많이 상해있구나. 형광등 불빛을 받아 그녀의 얼굴은 푸르딩딩하게 보였다. 그녀의 어깨에서 젖은 외투를 벗기는데 갑자기 그녀가 내 팔을 잡고는 내 손을 자기의 얼굴에다 가져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이정씨, 나 어디 갔다오는지 궁금하지? 나... 우리 엄마한테, 그 미친 여자, 내가 가니까 허를 빼놓고 죽어 있더라. 미치던 너지잖으니... 질기게도 잘도 명 길게 살것만 같더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풀려서 ‘미친 여자’를 연음으로 발음하고 있었다. 찬유는 발뺌 허리를 일으키더니 코를 뽀하니 풀어제쳤다. 나는 얼른 티슈를 빼다 주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광광하고 풀기만 할 뿐 닦질 않는다. 그녀의 입에선 눈물과 콧물과 말들이 뒤섞여 쏟아나오고 있었다.

“그 미친녀자가 날 낳았지... 꼭... 애비가 누군줄은 알게 뭐야... 그 극... 백

“내게서 삶이란 그냥 살아가는 그 이상도 이하의 것도 아니었다. 삶의 방향이란 애초에 없었고 그다지 필요해하지도 않았고... 나는 불안했지, 그들에게 안내받으면서 돌아본 내 안, 나와 내 엄마 밖에는 없는, 텅빈 내 안의 풍경이.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이 점점 황량해져 가는 것 같았어. 그들과 같이질 수는 없었으므로...”

있었다.

찬유와 나는 바닷바람에 옷이 눅눅해진 채로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걸어 돌아오는 길에 찬유는 뻑뻑 노래들을 불렀었다. 그런 그녀의 행동, 저만치 앞서가다가는 화르륵이 달려서서 내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도망가고 다시 모르는척 건다가 내 손을 잡고는 비트는 시늉을 하고... 나는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시선을 받아가며 어쩔줄을 몰라 잔뜩 얼굴을 붉히기만 했다.

사람은 취한 찬유를 부축하면서 이런 이런 이런... 하고 허를 차가만 했다. 나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다. 찬유의 이야기로 인해 각성된 뇌는 쉽게 잠이 들지가 않았다. 음악을 틀었다. 찬유와 나는... 맑고 명랑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다. ‘뮤직박스댄서’, 유리상자 안의 인형처럼, 밖의 시선에는 아랑곳없이 빠른 템포의 리듬에 맞춰 술론 듯 기쁜 듯 돌돌돌 춤추며 돌아가는 인형처럼 찬유와 나는...

나는 일주일일 앓았다. 주유소와 지하실방을 거의 혼수상태에서 왔다갔다 했다. 내일이면 나는 절명할지도 모른다. 다소 과장된 위기의식을 갖게 될 정도로 나는 불현듯 다친 고통을 일깨우고 어쩔줄 몰라하고 있었던 것이다. 멍청한 나, 하이정. 넌 어찌라고 앞뒤 재보지도 않고 단행하는 내 성격을 자꾸 자꾸 까먹어버리는 것이나...

값비싼 초음파 검사와 비타민제 몇알로 일년동안 그 의사는 내 병을 잘도 관리해왔군. 앞으로 몇년동안 나는 그의 수임장부에 오르다가 시한부 통지서를 받게 될까? 약병지도 챙기지 않고 병원 문을 밀치고 나오면서 나는 뭐라 지껄였던가... 다행히 내 상태는 의사의 응급조치로 위기로 치닫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의사에 대한 나의 방어자세가 결국 내 가슴속에 폭을 날린 것이었다.

몸이 차츰 호전되어가자 나는 다시 열방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아무런

개도 더 뿔겔? 왜에 왜놈 현치쳐 노릇도 했고 동두... 끄우... 동두천에선 얼마나 잘 나가는 가수였는데... 벌여먹을... 꼭... 내가 트기가 아닌게 신기하지...

찬유는 아예 머리를 무릎에다 박고 으어어 으어영하고 소리내어 울어 왔다. 마치 그녀의 몸 안에 있는 물이란 물은 모두 쏟아낼 양으로, 난 몹시 난감했다. 그녀의 갑작스럽고 거의 발작에 가까운 녀드리에 난 어쩔 줄 몰라 그녀의 뉘씩이는 어깨만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찬유는 고개를 들고 얼굴에 몽개진 액체들을 휴지로 닦아냈다. 그리고는 잠시 후후하고 이 한숨을 내쉬고는 마음을 진정시키는지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미안해 이정씨, 이런 꼴 보이고...”

탈진된 듯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나는 냉장고 안에서 차가운 물을 따라다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녀는 몇 모금만 마시고나더니 컵을 내려놓고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좀 들어줄래? 그 여자, 나를 광장히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처럼 길렀어. 내가 성장할때 그 여자 방을 드나들던 코쟁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끈적한 눈빛을 그 여자는 내 앞을 에워싸고는 온, 하이지 마이 썬하고 대들면서 막아내곤 했지. 그러다 말고 우습지? 후후... 나를 대학에 보내고, 그렇게 그 여자는 자신의 진을 모두 새끼인 내게 다 뱉어먹 인거야. 입학하자 나는 서울로 따로 이주했고 내 통장으로는 한달 이자로 꼬박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이 붙여진 채, 나는 어엿한 여대생이 된거지...”

찬유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외투주머니를 뒤져 담배 한개비를 꺼내고는 불을 붙여 문다. 그녀는 쓰으 소리가 날 정도로 깊이 한 모금을 빨고는 서서히 연기를 내뿜었다. 그녀의 목 속을 적셨다가 ‘나오는 연기를 바라보자 나는 순간 눈가가 아려왔다.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어... 언니처럼

따랐던. 강인한 신념의 소유자였다. 나를 충분히 설득시킬만큼. 그 때는 한창 윤금씨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돼 많은 이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었고...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거였잖나? 선배는 내 엄마의 이야기를 학내에 여론화 시키자고 나를 설득했다. 고민했지. 슬프고 분하고 부끄럽고... 엄마는 알고 계셨는지 연락이 뜸했다. 나는 선배와의 인터뷰에 응했지. 그녀는 나와 이를 밤을 지새우고 나서는 눈물까지 흘리더구나. 그 강인한 여자가... 후...”

찬유는 거기서 잠시 말을 끊고는 물을 한모금 마시고는 다 타버린 담배대를 껍에다 비벼 꺾었다. 나는 담배를 한개비 꺼내어 그녀에게 내밀었으나 그녀는 사양한 채 무릎을 웅그리고는 턱을 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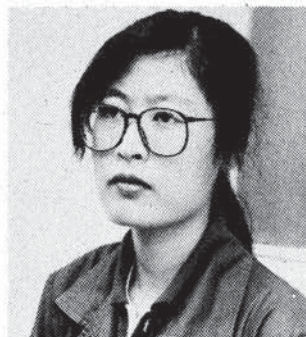
“그 이후로 선배를 보지 못했어. 아니... 한달쯤 보았지. 어느 여성지에 선배의 글이 실렸더라. 그녀는 리포터를 맡았던 건지. 나는 그 기사를 전부 읽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렸다. 물론 심본 이해를 했다. 학내 여론화 하기는 너무 상투적일 수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기획의도가 편집자에 의해 변색되었을 수도 있었지. 하지만... 난 배신감으로 어쩔 줄 몰랐다. 기만당한거야... 허망했지...”

찬유는 입을 다물고 물끄러미 정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도저히 그녀의 공허한 눈빛과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아 내 발끝만을 응시했다.

눈을 뜨니 열자리에 누웠던 찬유가 없다. 채 방으로 간 걸까. 새벽 세 시, 아광시계의 바늘이 구십도 각도를 가리키는 게 언뜻 구도자의 얼굴같다. 탈속한 듯 무표정한 나는 누운 채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사물은 시선의

당 선 소 감

“이제 내밖의 세계 관조할 수 있는 시안을 주소서”



당선소식을 듣고 나는 기름때 묻은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몇 번이나 쓰다듬었지. 실실 웃으며 주유소 마당을 몇 번이나 돌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 ‘이제 내 안에서 벗어나 내 밖의 세계를 관조할 수 있

는 시안을 주소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크리스찬도 아닌 나는 낯선 주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진지하게 구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주작스러운 정도로 감격했다.

보기 민망스러운 정도로 자멸감으로 잔뜩 웅크려 있었다. 그런 내게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학과 여러 선생님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그리고 당선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게는 크나큰 용기를 선사해주신 두 심사위원 선생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린다. 그리고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내게 여러 이미지를 가져다 준 친구 해원과 그녀의 친구 찬유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다.

(현은정)

리된 채 그저 방아저세만 취하고 아무 생각없이 지내는 거다.

하지만 내가 출구를 찾기 위해서 한 일은 대체 뭐가. 집을 나오고, 학교를 그만두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행위들을 무슨 의식처럼 행하면서(심지어 그 첫 의식을 치르면서 나는 이상한 행복감에 취해 있었는데) 요란을 떠난지. 나의 행위들을 뒤따른 것은 무엇들이었나.

다들 간 뜰을 볼 수 있는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사감’의 말이 맞군. 창보다 낮았어. 아직 연한 일들이 뽕뽕뽕한 대추나무와 장미넝쿨이 어우러져 청량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뽕미가, 교회를 다녀와보니까 글쎄 우리 뽕미가 그 방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짓고 있지 않아? 문은 잠겨있고, 어디 갔겠지 하려면 서도 삼삼치기 않아 우리 뽕미 하는게, 그대 경찰을 부르고는 드릴로 따고 들어갔지. 근데 세상에나 어찌된... 말을 하면서도 사감은 그날의 장면이 떠오른 듯 무서움에 몸을 떨었다. 나는 찬유의 유해가 든 상자를 들고는 나뭇가지를 조심스레 거두며 뜰 안으로 들어갔다. 햇빛이 잘 드는구나. 나뭇가지들이 잔디 위에 있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대추나무 옆 돌의자에 앉아 상자를 내려놓고는 차마주머니에서 해원의 편지를 꺼냈다.

이정에게

네 편지는 불행히도 내가 없는 동안에 집에 두 통이 나란히 놓여 있더구나. 두 달 간의 간격으로 씌어진 두 통을, 일기같은 네 편지들을 나란히 읽으면서 나는 ‘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음을 기억해줄까’ 바란다.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사회적인 자아보다는 개인적인 자아가 무척 강하게 야난가 생각한다. 내 성장이 우울했던 불행했던 간에 너는 그것을 내 밖에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지 않고 아예 외면해버렸거나 내 안에 스스로를 유체시킨채 자학한 일삼아 온 건 아닐까. 생각해보렴. 네 나약한 자아가 대학에서 부딪혔던 일들을, 출구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너는 내가 부딪히고 깨져야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안전환 공간만을 얻으려 다닌게 아니니? 차라리 너 개인적 성장의 유락에 빠져 지낼 바엔 차라리 그렇게나 해버려. 그렇게 살아도 네 본성에서 세상의 도덕적 기준의 재배치에는 어떠한 기여도 못할 지니. 난 단지 유약한 식물로나 살다가면 그뿐이야.

사람이 사는데 삶의 의미를 밝히며 살아야지. 신념이 필요한거다. 건 뭐 주먹쥐고 쟁투하는 것만이 아닌 크게는 작게는 앞으로 ‘살아나갈 방식’인 것만을 네게 고프로 말해주고 싶다. 그 방식을 네 스스로 터득하길 바라며 이만 줄인다. 건강하길.

그 신념이라는 말, 내가 이상하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그 단어를 보며 아릇한 감정에 휩싸였다. 나는 이 말에서 이제야 자유로워졌는가. 언뜻 뭔가가 반짝였다. 나는 그쪽을 향해 고개를 푹 젖혔다. 유리병들... 이 햇빛을 반사시키는 반짝반짝 날개짓을 하고 있었다. 감람빛이 잔디의 색과 잘 어울려있다. 나는 그 가운데 두 개를 골라내어 상자 위에 놓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유리안의 공기는 너무나 투명하고 조용해 고작감이 들었다. 무중력의 공간... 너를 저기다 놓아 두어야겠구나. 투명한 저 안에 들어가면 밖은 우리와 무관한 채 아름답게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 너와 나는, 유리병 안쪽으로 난 출구를 향해 들어가고 있었던건지도 모르겠다. 출구라고 생각한 그 자태의 중심으로. 그래... 찬유, 너는 유리병 안에 너 출구라서 너 목을 그걸로 찌른거니? 나는 논가가 시큰하게 어려서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나는 고개를 위로 젖혔다. 거기는 어느덧 무르익은 봄날의 감람빛 하늘이 가득 펼쳐져 있었다.

(끝)

■ 제15회 백록문학상 문학평론 부문 당선작

1. 서론

[변신]의 작가인 카프카는 글쓰는 행위의 기원을 '모든 것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글을 쓰는 자에게서 그 펜마저 있어 가려 하는 절망'에 두고 있다. 결정적으로 작가는 그에게 집지워진 '절망'이 원인이 되어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기형도가 집요하게 '절망'을 파고들고 이를 시의 한 모티브로 정착시키고 있음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다.

한때 절망이 내 삶의 전부였던 적이 있었다.

그 절망의 내용조차 있어버린 지금 나는 내 삶의 일부본도 알지 못한다. -[일 속의 검은 잎], (10월)에서

오랫동안 글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 땅의 날씨가 나뉘고 나는 그 날씨를 '견디지 못했다. 그때도 거리는 있었고 자동차는 지나갔다. 가을에는 퇴근길에 커피도 마셨으며 눈이 오는 종로에서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시를 쓰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형식을 찾지 못한 채 대부분 공중에 흩어졌다. 적어도 내게 있어 글을 쓰지 못하는 무력감이 육체에 가장 큰 적아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알았다. -[기형도 산문집], (시작 메모)에서

차라리 나는 내가 철저히 파멸하고 망가져 버리는 상태까지 가고 싶었다. 나는 어떤 시에선가 불행하다고 적었다. 일생 뉘의 경험을 다뤘다고, 도대체 무엇이 더 남아있던 말인가! 누군가 내 정신을 들여다보면 경악할 것이다. 사막이나 황무지, 그 가운데 띄엄띄엄 놓여 있는 물구덩이, 그렇다. 그 '물구덩이'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아직 죽음쪽으로 가지 않고 죽은 듯이 살아있는 이유를 그 물구덩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짧은 여행의 기록]에서

결론적으로 그의 시는 이 땅의 나쁜 날씨에 연유하여 '절망'이 지배하는 '사막'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러므로 기형도 작품을 해석함에 있어, 위에서 제시한 '카프카'의 시론보다 더 밀도있는 시론은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의 작품세계가 회귀하는 중심점을 '절망'으로 인한 '고독'과 '고독'이라는 딜레마의 극복으로 보고 이를 양산해내는 공간인 '겨울'과 '포도밭 묘지'를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삶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형도 시의 대부분은 집과 같은 '안'의 구조에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골목, 정거장, 길, 폭풍의 언덕 등 '밖'의 구조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밀한 공간에 머물지 못하고 세계에, 현실에 내던져져 있어야만 하는, 한 실존주의자의 '불안'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는 '안'과 '밖'의 이중구조에서 무리하게 '안'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밖'구조의 불모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축하고 있다. 모리스 블랑쇼는 가장 진지한 작가들은 '터놓고 그들 자신이 포기한 것을 포기상태로 놓아둔다'고 했다. 우리는 거기에서 블랑쇼적인 기형도의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절망을 치유할 수 있는 '물구덩이'(희망)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지만, 애써 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나리 나리 개나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시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불리게 만드는 '죽음'이미지이다. 그의 작품에서 골짜기 발견되는 '죽음'때문에 그의 시는 비극적 세계관으로 인식된다.

그는 작품 속에서 '죽음'이 살아 있으면서 죽음에 화합되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그가 화합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죽음이미지는 자연적인 죽음 그 자체는 아니다. 종교에 있어서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진리'에 이르는 길인 것처럼, 기형도가 화합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죽음 또한 다른 관계까지를 포섭하려 드는 죽음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 '죽음'이란, '고독'이라는 딜레마 극복을 위해 사용해야 했던 작가의 의무로서의 선택이미지인 것이다. 작품을 쓰는 동안 소외되었던 기형도는 이미 다른 세계로 격리되었다. 여태껏 진지하게 보지 않았던 삶의 한 국면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소외되고 격리될 차례다.

2. 본론

1) 상상력이 머무는 공간. -겨울 관화에서 포도밭 묘지까지-

기형도 시의 풍경을 주목할 경우 특

이한 냄새를 가진 계절, 한 개인적인 계절을 포착할 수 있다. 물론 '봄'이라든가 '여름' '가을'의 공간 이미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이 가장 강력한 시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겨울에 대한 기억의 대부분은 잃어버린 시간의 추억 속에서 복원되고 있는데 이처럼 혼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상력'과 '기억' 속이다.

기형도의 시에 있어 겨울은 그 시대를 추억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그 심연이 머물게 되는 공간으로써 유년시절, 청년시절의 '내면적 독백'이 주로 머무는 공간이다. (바람의 집)에서 (람프와 뿔)으로 이어지는 (겨울 관화) 연작은 물론이고 (위험한 가계) (밤눈) (그집 앞) 등등 다른 시 대부분도 겨울을 시의 공간으로 원용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이 주요공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독' '눈' '얼음장' '겨울안개'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아버지, 여전히 말해도 못하고 굳은 혀. 어느만큼 눈이 녹아야 흐르실는지. 털실 뭉치를 감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봄이 오면 아버지도 나오신다. 언제가 봄이예요. 우리 모두 낫는 날이 봄이예요? 그러나 썰매를 타다보면 빙판 밑으로는 푸른 물이 흐르는게 보였다. - (위험한 가계, 1969)에서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누고 무던 칼끝으로 시퍼런 무우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 (겨울 관화)에서

너무 큰 등반의자 깊숙이 오후, 가을은 고드름 한 개 얹혀 놓고 조그만 모빌처럼 흔들거리며, 아버지 또 어디로 도망 치셨는지... 가난한 아버지, 왜 항상 물그림만 그리셨을까? 그림 밖으로 나를 때마다 나는 물론 손 들어 눈

안팎에서 길들여지기, 또는 그 중심의 괴로움

-기형도론 임 선 희 (국어국문학4과)



주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포도밭 묘지 1·2)에 이르르면 상상해야 할 여름의 포도밭마저 그에게 있어서는 '묘지'로 인식되고 있다. '묘지'라는 소재를 상징적 관념을 깨뜨리고, 생명이나 탄생의 무대로 변화시켜 이해한 박두진(의 묘지)과 같은 작품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묘지는 그 원형적 이미지로써 '죽음'이라든가 '허무' '인생무상' 혹은 '폐허나 소멸'의 이미지로 이해된다.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겨울 관화'나 '포도밭' 모두 그 내용 분석을 통해서 '내부의 유배지'라는 동일한 지위선상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많은 경우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 기형도의 시는 그가 살아왔던 어려운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어려움이란 유년시절의 물질적 궁핍과 성인이 된 뒤 이후 경험하게 되는 세계의 폭력성 및 허위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근교의 농촌에서 보낸 그의 어린시절은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갑작스런 병환으로 인한 가난, 어머니를 비롯한 나머지 전가족의 생업 전선으로의 진출, 어린 시절 목격한 누이의 죽음 등 가족사적 불행으로 점철되고 있다. 또 성인이 된 뒤 거대도시에 입성해 조지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는 보람없는 일상적 삶의 파멸이 마도되어 가는 실존의 덧없음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 '겨울'이란 공간은 극도의 궁핍함과 이를 타개해나가기 위한 시적 상상력을 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겨울은 모든 사람이 거주하는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삶의 광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밀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형도의 시공간에 나타나는 겨울은 '내부의 유배지'라고 결정지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 '겨울'을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부의 유배공간'을 공개하고 다음항적인 '울림'을 읽어내기로 한다.

1) 그 해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다.

고맙습니다
겨울은 언제나 저희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 (겨울 관화 6)에서

2) 그해엔 왜 그토록 엄청난 눈이 내렸는지. 그 겨울이 다갈 무렵 수은주 세파랑게 곤두박질치며 우르르 몰려 가던 폭설. 그때까지 나는 사람이 왜 없었는지 또한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알지 못하였다. 한낮의 눈보라는 자꾸만 가난 주위로만 뭉치지만 밤이면 종종 여기저기에 빛나는 얼음조각들이 박혀 있었다. - (겨울 관화 4)에서

어슴프레한 겨울 저녁, 집밖을 찬바람이 떠다닌다
유리창의 얼음을 뜯어내다 말고, 사내는 주저앉는다
아아, 오일은 유쾌한 하루였다, 자신의 마지막한 탄식에 사내는 견갑을 수없이 불태웠다
(중략)
나에게도 추억거리는 많다
아무도 내가 살아온 내용에 간섭하면 안된다
몇 장의 사진을 들여다보던 사내가 한숨을 쉰다 - (추억에 대한 경험)에서

때마침 진눈깨비 흩날린다.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잠 많은 각을 했었다.
내리다 진눈깨비, 놀랄 것 없다. 번덕이 심한 다리여
(중략)
진눈깨비 쏟아진다. 갑자기 눈물이 흐른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일생 뉘의 경험을 다뤘다, 진눈 깨비
- (진눈깨비)에서

3) 그리하여 내 정든 포도밭에서 어느 하루 한 알 새파란 소스라침으로 떨어져 쏜들처럼 누운 밤이면 어둠도, 숨

죽인 희망도 내게는 너무나 거추장스러웠네
- (포도밭 묘지 1)에서

아아, 그때의 빛이며, 빗주위로 뭉치는 어둠이며, 서편 하늘 가득 실신한 청동의 구름이며, 목책안으로 푹 떨어져 내리던 투명한 새들이여, 쓴 물 밖으로 소스라치며 튀어 나오던 미친 꽃들이여 (중략) 밤은 그렇게 왔다. 포도밭착실 앞 커다란 등반의자에 붙어 한 잎 식물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둠은 화염처럼 고요해지고 언제나 내 눈물을 불러내는 저 깊은 공중들... - (포도밭 묘지 2)에서

편의상 1)은 유년시절을 추억하는 공간으로서의 '겨울'로, 2)는 성장한 이후 도시생활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의 '겨울'로 3)은 작가 자신이 '묘지'라는 제목을 붙여 무기력한 공간으로 상징하고 있는 '포도밭'으로 구분하였다. 유년시절에 있어서는 작가와 동일시화된 화자의 목소리로 서술되고 있고 성장이후에 있어서는 내재화된 타자의 목소리로 서술되고 있다.

보들레르는 겨울 속에 잠겨 있는 '인공낙원'을 이야기 하면서 몽상가는 몹시 '추운 겨울'을 바란다고 말한다.

몽상가는 매년 하늘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싸락눈과 서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한다. 그에게는 캐나다의 겨울, 러시아의 겨울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그 속소는 더 따뜻하였고 더 아늑하고 사랑받게 될 것이다. -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에서

그러나 이러한 보들레르의 '인공낙원'으로서의 겨울은 기형도의 시공간에 적용될 수 없다. 기형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겨울의 공간에서 간섭함을 누릴 만한 아늑한 '안'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때문이다. - 이는 2)에서 다룬 '안' 없는 '밖'의 구조에서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 그래서 그에게 있어 겨울은 '시퍼런 무우'나 '손을 베일 듯 사나운 은빛 나뭇가지'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때문에 화자는 여전히 겨울이 지속될 뿐 봄이 없게 겨울은 '시퍼런 무우'나 '손을 베일 듯 사나운 은빛 나뭇가지'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때문에 화자는 여전히 겨울이 지속될 뿐 봄이 없게 겨울은 '시퍼런 무우'나 '손을 베일 듯 사나운 은빛 나뭇가지'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각인되는 것이다.

결국, '물그림만 그리는 가을은 고드름'(아비지)때문에 빙판 밑으로는 푸른 물이 흘러도 화자는 '우리 모두 낫는 날' 이어야 봄이 움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겨울 공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겨울에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이는 포기상태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불량소적인 기형도의 미덕은 여기에서 발견된다.

2, 3)에서는 이러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한 성장한 청년의 우울을 보게 된다. 이러한 그의 우울은 7, 80년대라는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70년대는 산업화발전기는 경제 중심의 사회에서 가난이 그를 우울하게 하였고, 80년대는 역사의 폭풍(오월 광주를 비롯하여)이 그를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표현함에 있어 다른 작가들의 그것처럼(박노해나 김남주, 정경우) 직설적, 노출적인 것은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고통은 하나의 무거운 죄의식처럼 작용하고 있다.

한편, 작품속에서는 이러한 죄의식에 선행되어 당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삶의 온기를 흡수해버리는 주범은 겨울, 즉 '눈'으로 형상화된다. 엄청난데 내리는 '눈'은 가난 주위로만 뭉치기에 더욱 고달픈 사람들을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시대의 '폭설' 때문에 그 시대의 많은 '삼촌'들은 없어져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황판단이 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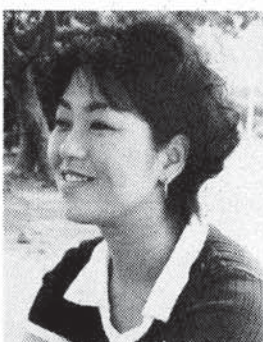
이러한 정치의 폭압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 (일속의 검은 잎)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그 해 여름 땀바닥은 책과 검은 잎(입)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중략)
백색의 처량 가득 검은 잎(입)들은 나부꼈다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어린 아들은
일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해 여름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 넘쳤다(중략)
내 입 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 (일속의 검은 잎)에서

이러한 것들로 추억되는 공간은 권태롭다. 환멸의 정서일 뿐이다. 그래서 금기야 (잠미빛 인생)에서는 '나는 인생을 증오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고, (물 속의 사막)에서는 '나는 햇빛을 살아 햇빛이었다'는 허무한 심연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는 탄식한다. 그는 완전히 다르

당선소감

“최선을 통해 최상에 접근할 수 있음을 절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언가를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 돌아보면 그러한 것들이 주축이 되어 내 불안한 삶을 온전하게 회전시켰던 것 같다.

당선 소식을 들던 날. 아무런 감정의 동요없이 연이어 열 세시간을 잠만 잤다. 그리고는 간만에 느꼈던 그 개운함. 삶은 늘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자주, 허둥거리다가도 흔들림 없이 자유롭게 멈추

어설 수 있는 것.

간만에 높은음자리에 올라간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습한 공기를 밀어내고 있다. 자꾸만 무더워져 가는 내 감성의 음표도 저 높은음자리로 옮겨져야 할 텐데...

하지만 이제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최선을 통해 최상에 근접할 수 있음을.

우선 이를 일깨워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짜증만 내는 나를 믿지 않게 지켜보아준 친구들, 나의 조그만 가능성을 믿어주셨던 선배, 늘 문학 안에서 살도록 일깨워주셨던 교수님들께도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미흡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갖고 야류가 아닌 생을 살아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임선희)

게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도 그럴 만한 권리는 있지 않은가.((여행자))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다. 그에게 사건이 많았다는 것도, 콘크리트처럼 잘 참아왔다는 것도, 더이상 무너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도. ((오후 4시의 희망)) 그래서 찬바람이 떠다니는 겨울저녁에 얼음(살의 온기, 희망의 흐름을 포장해 버리는 고체의 이미지)을 뜯어내다 말고 주저앉아 차라리 '소외'(아무도 내가 살아온 내용에 간섭하면 안된다.)되기를 원할 뿐이다. 생각해보다 진눈깨비 속에서 경험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생 뉘의 경험'을 하느라 그는 얼마나 불행했겠는가!

그래서 겨울도 포도밭도 하나의 '유배공간'처럼 작용할 뿐이다. '새파란 소스라침으로 쏜들처럼 숨죽여'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배공간은 이중의 거추장스러움을 내재하고 있다. 희망이 거추장스러우며, 희망을 필요로 하는 정든 포도밭이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실신하고 소스라치게 하면서 눈물을 불러내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포도밭 묘지1))

결론적으로 겨울도 포도밭도 개인적인 밀실로써 내부의 '유배공간'인 동시에 그 시대를 상징화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환기하는 공간이미지는 '안락함'에서 일탈한 후에 (그에게도 안락한 시절이 있었는가? 이는 여전히 의문이다.) 거치게 되는 '유배'이미지이다.

한편, 이러한 공간이미지 형성에 극대화하고 있는 '눈' '어둠' '겨울안개' '구름' '폭설' 등도 자연의 비유로써 힘 안 들이고 세계와 가족과 나를 무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미지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작가는 '죽은 듯이 살겠다' 결심을 했기에 겨울 속에, 포도밭 묘지 속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것들과 투쟁의 양상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서 블랑쇼적인 기형도의 미덕이 두번재로 발견된다. "나는 곧 무너질 것들만 그리워 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돌아갈 수도 없이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났더라 이 길. 어둠 속에서 중얼거린다"에서 처럼 오직 자신이 자신과 싸우고 있고, 추억 혹은 기억과 싸우는 양상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부'의 유배공간인 '내 밀화'된 유배공간임이 뚜렷해진다.

2) '안' 없는 '밖'의 구조

상상력과 시적 교감의 문제에 몰두했던 가스통 바슐라르는 '현존재'의 중심점이 흔들리고 떨릴 때 내밀(내부)의 공간은 일체의 밝음을 잃어버리고, 외부공간은 그것의 공백(존재 가능성의 질료)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밝음'과 '공백'이 없음에 연유하여 인간은 많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추방된다고 덧붙인다.

1)의 상상력이 머무는 공간에서 겨울과 포도밭의 '유배공간'이미지에 의하여 '현존재'의 내적 불안을 이미 읽어낸 바 있다. 내적 불안이 지배적인 기형도의 시는 바로 '밝음'과 '공백'이 없는 시이다. 그러나 기형도의 시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안'구조에 비하여 '밖'구조가 월등히 우세하다는 점이다. 이는 그가 '안' 구조에서 쉽게 '포기'상태를 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밖'구조에 있어서는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형도의 시는 '밝음'을 잃어버리기는 하였지만 아직 '존재가능성의 질료'마저 포기한 시는 아니다.

시인 자신도 겨울의 공격에서 안락함을 누릴만한 아늑한 '안'의 공간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기에 의도적으로 '밖'의 구조에서 시가 진행될 것임을 (시작 메모)에서 언급하고 있다.

나는 한동안 무척임한 자연의 비유(인간계의 현실이 더 옳을 듯 하다.)를 경계하느라 거리에서 시를 만들었다. 거리의 상상력은 고통이었고 나는 그 고통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잠언이 자연 속에 있음을 지금도 나는 믿는다. 그러한 믿음에 인젠가 나를 부를 것이다. 나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작가는 거리의 상상력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사랑하고 감내하였기에 거리에서 만든 시를 통해 존재의 중심에 이르러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밖'구조는 반드시 '집'과 대립되는 '거리'로서의 '밖'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존재가능성을 보여주는 '공백'으로서의 '밖'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면 남만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안'구조와는 다른 '안'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밖', '안'의 풍경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작품 속에서 간혹 제시되는 '안'구조는 '사막' 혹은 '황무지'와 같이 생존을 허락지 않을 만큼 건조하며 불안한 흔적을 담고 있다. 이는 불안한 그의 정신을 반영한다. 그래서 '안'구조는 쉽게 잡이 오지 않고 축축한 의식으로 빠져들게만 하는 ((조지원)) '열차 안'이며, 마구 비틀거리는 겨울, 나의 잘못으로 인해 사랑을 잃은 ((그집 앞)) '술집'이며, 아버지는 종병으로 누워계시고 어머니는 털실뭉치를 감고, 큰누이는 소리를 수박에 없는 ((위험한 가계, 1969)) '쓸쓸한 방'이며, 물결을 끝없이 갈아주어도 저 꽃은 죽고 말 두려운 침묵만이 존재하는((오후 4시의 희망)) '사무실 안' 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안'구조에서 탈출을 기도한다. 다음의 시 (그날)에서 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어둑어둑한 여름날 아침 낡은 창문 틈새로 빗방울이 들이친다. 어두운 방 한복판에서 숲은 집을 싸고 있다.(중략) 비로소 나는 풀려나간다. 검은 시선에게 속삭인다, 마침내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

나를 끌고 다녔던 몇개의 길을 나는 영원히 추방한다.(중략) 내가 지나치는 거리마다 낯선 기쁨과 전율은 가득 차리니 어떠한 권태도 더이상 내 혀를 지배하면 안된다 (중략) 어둑어둑한 여름날 아침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길은 침대처럼 고요하다(중략)잠시동안 깊은 무표정하게 거리를 바라본다. 검은 천천히 손잡이를 놓는다. 마침내 희망과 결음이 동시에 떨어진다. 그순간, 쇄동처럼 트렁크가 길을 찌르뜨린다. 그곳에서 계절이 같은 가을은 울음 소리가 터진다. - (그날)에서

'안'의 구조를 전도시키기 위해서, 다시 밝음을 얻기 위해서, 탈출을 기도한 그에게 거리는 하나의 initiation의 장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거리로 나가면서 '세상'의 중심이 되었다고 속삭이고, 거리마다 기쁨과 전율이 가득차리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어떠한 권태도 '안'에서처럼 그의 혀를 지배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실상 문은 열고 나가본 거리는 '침대'처럼 고요할 뿐이다. 침대로 형상화되고 있는 '안' 공간과 (다음 면에 계속)

■ 제15회 백록문학상 문학평론 부문 당선작

(앞면에서 이어짐)

다를 바가 없다. 어떠한 존재가능성을 확인받기엔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한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무력한 공간에의 인식은 길이 가졌던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추락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있고, 김은 쓰러지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 '물구덩이(희망)'가 그의 육체를 쓰러뜨리고 만 것이다. 결국 각 '박' 공간도 여전히 '울음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의 시에서 특이한 점은 이처럼 '거리'의 황폐성을 드러냄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 '저대성'이 극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기형도 특유의 '절제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시의 주를 이루는 '박'공간의 황폐성, 폭압성, 비인간성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제의 미학'을 다음의 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몇개의 그림자가 어슬렁거렸다.
어떤 그림자는 캄캄한 벽에 붙어 있었다.
눈치 채 차량들이 서둘러 불을 켜다.
(중략)
담뱃배이 반짝했다. 골목으로 들어오던 행인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나쁘게 말하다)에서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객공 하나가 갑판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죽 위에서 醉客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겨울 지난 삼륜차는 그것이
쓰러지더니 줄 았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닦은 아니었다.
-(안개)에서

거리는 인간성이 훼손된 장소로써 무거운 고통의 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당시 유행하던 '지나친 과정의 표정'을 탈피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엄숙하고도 진지한 울림을 읽어내도록 하고 있다. 즉 그가 결론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시니컬한 만행이 아니라 세밀화된 당시대의 풍경화라고 할 수 있다.

거리는 이처럼 고통을 생산해내는 공장일뿐 어떤 출구도, 확신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거리에서 결론적으로 작가가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가능성'이다. 따라서 시인은 거리와 나를 분리시키지 않고 능동적인 접촉을 통하여 변화가능성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능동적인 접촉 이전에 시인은 '나'의 의식이 '거리'를 더 불모화하고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듯 하다.

아아, 난간마다 안개 (중략)
휘파람의 섬세한 허만 가בע게 말리우는 거리는 너무도 쉽게 어두워진다. 나의 추상이나 힘겨운 감상의 망토속에서 폭풍주의보는 빨라처럼 날리고 어디선가 뚝뚝 매듭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중략) 나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떨리는 것은 잠과 타종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내 유약한 의식이다.
-(비가2)에서

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은 공포한 바람이며 늘 무무는 폭풍이다. 그러나 이는 현상적인 측면이다. 여기에 '나'의 추상이나 힘겨운 감상의 망토까지 가세하면 그때 '거리'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쉽게 어두워지고 만다. 결국 시인은 이 '박'구조가 그 자체로 '존재가능성'을 갖지 못함에는 비틀거리는 내 유약한 의식 또한 한몫하고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깨달은 그는 유년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시 '위험한 가계, 1969'에서 능동적인 접촉으로 '행동화'의 결연을 드러낸다. 미친 바람이 불어 누리를 구부러진 핀처럼, 어머니를 가는 누리막처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공간(언덕)에서 그는 '무수한 변증의 비명을 지르는 풀잎을 사납게 베어 넘어뜨리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베어 넘어뜨림'의 의미는 능동적 접촉의 일환인 '제압'의 의미로써 존재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의 하나이다. 그러나 능동적 접촉과는 상관없이 '거리'는 여전히 그 불모성과 황폐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한마리의 '개'로 형상화하고 있다. 지칠 줄 모르고 그저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만 하며 탄식밖에 하지 못하는 '나'는 개와 다를 바가 없다.

구름 밑을 천천히 쓰나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질투는 나의 힘)에서

'나'와, '개'가 동일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시 (정거장에서의 충고)에 이르면 그는 '박'을 지향했던 자신의 선택에 회의를 느낀다. 정거장은 '정지'를 환기시키는 공간이기에 진보, 진전, 변화를 수용해내지 못한다. 게다가 '거리'는 나의 영향력을 조금도 수용해주지 못하고 '나'를 인간 아닌, 오직 하나의 '개'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기에 더욱 불편한 곳이다. 그래서 '검은 구름'과 '나'와 동일시화된 '개'는 전부 움직임 없이 '뒹어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 고통도 자신에게 집착시킨 절망으로 이해하고 잘 감내해내고 있다. '차라리 망각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 어쩌다가 집을 떠나왔던가'가 그것이다.

저녁의 정거장에 구름은 멎는다
그러나 추억은 황량하다. 군대군대 쓰러져 있던
개들은 황혼이면 처량한 눈을 껌벅일 것이다
물방울은 손등 위를 굴러다닌다. 나는
기우뚱
망각을 본다. 어쩌다가 집을 떠나왔던가
-(정거장에서의 충고)에서

그는 이쯤에서 공간의 전환을 꿈꾼다. '자신을 동그랗게 보호해줄 집(안)'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미발표시를 보면 '집을 짓는다'는 시구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그 내면이 움직이는 방향을 읽어낼 수 있다.

기형도씨 무얼했죠? 집을 지으려 했어.
누구의 집? 글썽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허물었어?

아예 짓지를 않았지. 예? 아니, 뭐, 그저 (중략)
그러하여 내가 이렇게 묻는다면, 미스한, 혼자 앉아서 이런 무엇을 할래? 집을 짓조. 누구의 집? 그건 비밀, 그래 우리에게 어떤 운명적인 파제가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품었던 우리들만의 방정식을 각자의 공식대로 풀어가는 것일터이니
-(사람을 잃고 나는 쓰네), (雨中의 나이)에서

그는 그가 지을 집이 누구를 위한 집인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을 회피한다. 단지 그에게 있어 집을 짓는다는 행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운명적인 과제였던 것이다.

결국 '거리'를 다 경험한 자가 이제 회귀해야 할 공간은 '안'이다. 즉 밖의 거소에서 안의 거소로 꿈들이 오간다. 하지만 이는 꿈일 뿐이다. 그는 이미 '안'의 공간에 회귀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복귀하여야 할 공간이 '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안이 '내가 끝낼래 갈 수 없는 생의 僻地'임을 알면서도 '그대는 아주 늦게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제 '동상'속에서 그가 회귀하고자 하는 '안'의 공간은 전과 같은 의사소통불능의 폐쇄화된 공간이 아니다. 램프가 켜진 음속된 공간이며 밝음이 있는 공간이다. 낭만주의자들은 '램프'를 집의 눈으로 여기는데 그렇다면 존재의 핵심에 이르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음의 시는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이 잘 투사화된 시이다.

그대, 내 낮은 기침 소리가 그대 단련의 잠속에서 깨어줄 때면 창틀에 조그만 램프를 켜다오. 내 그리움의 거리는 너무 멀고 침묵은 언제나 이리저리 나를 끌고 다닌다. 그대는 아주 늦게 창문을 열어야 한다. 불빛은 너무 약해 밝음을 잡을 수 없고, 가우뚱 고개 짓는 그대 한숨 속으로 언제든 나는 들어가고 싶었다. 아아, 그대는 곧 입김을 불어 한 잎의 불을 끄리라. 나는 소리 없이 가장 작은 나뭇가지를 꺾는다. 그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기고 나는 내가 끝낼래 갈 수 없는 생의 僻地를 조용히 바라본다. 그대, 저 고단 한 등피를 다 닦아내는 박명의 시간, 흐려지는 어둠 속에서 몇 개의 움직임을 그치고 지친 바람이 짧은 휴식을 끝마칠 때까지.
-(바람은 그대 쪽으로)에서

그에게 있어 '안'구조가 불안한 이유는 그가 '박'구조에서 전환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박'공간은 '존재가능성'을 제공한 공간은 아니다. 단지 '불모성' '황폐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안'구조에 이르러야 하는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는 공간이

다. 집이란 세계 안의 우리들의 구석이며 우리들의 최초의 세계이고 그것은 정녕 하나의 우주임을 바슬라르는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로 거주되는 일체의 공간은 '집'이라는 관념의 본질을 가진다. 이제 그가 회귀하고자 하는 공간은 '램프 켜진 집(방)'이기에 '존재가능성'의 영역이라 하겠다.

3. 작가의 의무로 선택한 죽음 이미지

하이에커의 명제를 빌리면,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이며 죽음은 현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능성이다. 더욱이 자기 시대가 위기이고 자신의 실존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시인은 더욱더 죽음에 집착하게 되며, 그것은 세계에 대한 부정과 비판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상징적 질서의 부여라는 문맥을 얻게 된다.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지각하며 사는 인간에게 죽음은 세계를 질서하는 상징적 기제이다.

기형도의 시는 '죽음'과 밀착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모든 사에서 드러내고 있는 '실존'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죽음'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시들을 주목하여 그 '의도의 공통성'을 추출해 보면, 그 기저에 '구원에 대한 불만'이 소금기 질게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단 그의 시 뿐만 아니라 편지, 소설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그의 삶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문제이다.

욕망을 거세당한 인간의 필연적 도피가 매저키즘이라든지 나의 의존적 절대가 결코 외부에 존재하지 않거나 설명 존재하더라도 나의 시야에 포착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마지막 오기처럼 잔존하였으므로 참혹한 아나키즘에 감각을 수없이 말려들어. -(편지 2)에서

의존적 절대, 구원의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그에게 오기처럼 작용하는 것이 죽음이다. 즉 작가는 우울과 내부의 불안을 잊기 위한 시도로써 '죽음'이미지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욕망의 충동에서 해방된 영혼의 무정부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죽음을 앞당기고, 앞당겨진 죽음을 통해 생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존주의를 추구하는 그의 시적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하노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에머슨의 말처럼 '죽은 듯이 사는 자는 산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었기에 아무리 극한적인 생활이 지배적일지라도 다만 불안의식을 느낄뿐 자연적인 의미의 죽음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내가 살아온 것은 거의
기적적이었었다
오랫동안 나는 공방이 피어
나는 여덟과 축축한 세계에서
아무도 들어다보지 않는 질서
(중략)
사실, 완전을 위해서라면 두께가
문제겠는가? 나는 여러 번 장소를 옮기며 살았지만
죽음은 생각도 못했었다. 나의 경력은
출생뿐이었으므로, 왜냐하면
두려움이 나의 속성이며
미래가 나의 과거이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용기란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 보라.
-(오래된 서적)에서

일생 뉘의 경험을 다한 자신을 '오래된 서적'에 비유하고 있는 위의 시에서, '실존'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는 '나'는 어떠한 장소를 옮기며 '완전'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공방이 피어있는 어둠과 축축한 세계의 방에서 거친 거리로 옮겨가는 여정이며, 불모성이 지배적인 거리에서는 황폐한 내부를 숨기기 위해 이파리들을 가득 피워내는 숲속의 나무로 '출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나는 완전한 실존을 위한 '출생'(변화된 새것으로의 탄생) 경력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불빛은 너무 약해 밝음을 잡을 수 없고, 가우뚱 고개 짓는 그대 한숨 속으로 언제든 나는 들어가고 싶었다. 아아, 그대는 곧 입김을 불어 한 잎의 불을 끄리라. 나는 소리 없이 가장 작은 나뭇가지를 꺾는다. 그 나뭇가지 뒤에 몸을 숨기고 나는 내가 끝낼래 갈 수 없는 생의 僻地를 조용히 바라본다. 그대, 저 고단 한 등피를 다 닦아내는 박명의 시간, 흐려지는 어둠 속에서 몇 개의 움직임을 그치고 지친 바람이 짧은 휴식을 끝마칠 때까지.
-(바람은 그대 쪽으로)에서

나는 나무를 끌고
집으로 돌아온다.
홀로 잔가지들을 치며
나무의 침묵을 듣는다.

나는 여기 있다.
죽음이란
가면을 벗은 삶인 것.
(중략)
내 청결한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나는 부재할 것이다.
타오르는 그와 아름다운 거리를 두고
그대, 심장을 조금씩 덮혀가면서,

늦겨울 태어나는 아침은
'가장 완벽한 자연을 만들기 위하여 오는 것. -[사람을 잃고 나는 쓰네], (겨울, 눈, 나무, 숲)에서

노발리스는 죽음을 향해가는 움직임은 의지의 응축이며, 그 응축된 의지의 미술적 힘은 긍정이라고 말했다. 기형도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가장 완벽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오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황폐한 내부가 이미 드러난 존재는 '질질 끌려온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통해 나무는 죽음과 재생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거처게 되는 죽음은 자연적인 의미의 죽음이 아니라 삶의 다른 한 모습, 즉 가면을 벗은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의 공간에서 실존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발적 죽음을 통해 '실존'을 얻으려 하는 자기당착적인 낙관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그의 작품 도처에서 발견된다.

결론적으로 죽음이란 자연현상으로써 존재의 소멸,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어 야만 하는 작가의 선택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그의 사적인 진술에서도 명쾌하게 드러난다.

파스칼 자르텔은 모든 사람은 슬픔 때문에 죽는다고 했지만 그 슬픔의 근원은 사실상 유물론적인 것에 기인한다고도 말할 수 있으리라... 오조음은 이러한 주술적 자살을 운운하지 않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염세주의의 'ism' 자체까지도 염세하는 '그것'이 되어 있다. 주체의 완벽한 객관화, 하여간 이러한 장난들이 내 무료한-포도밭 묘지같은-생을 긴장시켜 준다던 너는 기꺼이 나의 철학적 假死를 방조해도 좋으리라.
-(편지 3)에서

림케는 이중의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때 하나는 진정한 죽음이며 다른 하나는 진정한 죽지 못한 죽음이다. 기형도의 시에 주를 이루는 죽음은 '무로한 생'을 긴장시키는 활력소와도 같은 것으로써 세계와의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거짓 죽음이다. 따라서 기형도라면 그 긴 겨울의 통로를 비집고 걸어가면((우리는 그 긴 겨울의 통로를 비집고 걸어왔다))은통 먹물처럼 꿈꾼 흔적뿐인 하늘에서 타다만 휴지처럼 한 무더기 죽은 새들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반복적인 추락과 회귀는 '실존'을 확인하기 위한 작자의 의도적 행위다.

김은 주저않았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한번 훑어본 어떤 건물도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김은 중얼거린다. 이곳에는 죽음도 살지 못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그것과 섞였다. 습관은 아교처럼 안전하다.
-(오후4시의 회망)에서

사시나무 그림자 가득한 세상, 그 끝에 햇살을 디디고 죽음도 다져서 못하는 온도로 또 다른 하늘을 나는 돌고 있어. 네 속을 열면...
-(밤눈)에서

기형도 시에 등장하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불모성을 상징화하는 공간으로써 사막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현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능성인 죽음마저도 생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작가를 죽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유도하는 것은 그 공간구조가 아니라, 작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이미지 혹은 습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죽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임에 반하여 기형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능동적으로 장악해야 하는 표상이미지인 점이 특이하다. '나와 죽음은 서로를 지배하는 각자의 꿈'((포도밭 묘지 2)) '죽은 자들에게 나를 빌려주고 싶을 때가 많다.' ((흔해 빠진 독서))에서 죽음을 유도하는 작가의 능동성을 발견할 수 있다.

從者여, 네가 걱정을 사로잡지 못하여 죽음을 환관과 비교한다면 침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네가 울리는 낮은 종소리는 어찌 저 놀라운 노을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포도밭 묘지 2)에서

위에서 다시 본 것처럼 죽음은 환관이 아니다. 다만 구원받지 못한 불만이 극대화될 때, 격정에 사로잡힐 때 환관과 같은 작각을 일으킨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파괴되지 않으면 안될 무용처럼 인식된다.

카프카는 지양해야 할 죽음의 태도로써 만족스럽게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들고 있다. 만족스럽게 죽는다는 것은 이

■ 제15회 백록문학상 시부문 당선작

노오란 기억

송상은<국어교육과 3>

말갈지 않은 말들 속에 간혀 휘청이는 나를 본다.
지금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훑날리고,
유리창 속으로 비치는 그대의 얼굴이 노오란 기억속으로 스러져 간다.

노오란 튜올립을 좋아한다는 그대의 말에 길 옆 꽃가게의 유리창 속으로 빨간 장미가 노오랗게 물들고, 적갈색 포즈덤이 노오랗게 물들고... 주위를 맴도는 향기는 그대가 좋아하는 튜올립향인지. 장미향인지. 적갈색 포즈덤향인지... 그대를 맴도는 꽃향기에 현기증이 나는구나. 어지러이 날리는 진눈깨비는 유리창에 부서져 투명하게 흐르는데, 투명하게 떠오르는 향기, 그 날의 향기는 내 기억 속에서 노오랗게 번져, 유리창을 노오랗게 물들이고, 그 속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노오랗게 물들인다.

말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대를 만나고나서 안 일이다.
작은 무대장치 같던 바다에 달빛이 비치고, 그 달빛에 일렁이는 물결속에 함께 일렁이던 슬픔. 유리창에 번지던 그대의 얼굴은 달빛이었다. 달빛이 노오랗게 번지고, 달빛에 일렁이는 물결이 노오랗게 번지고, 그 물결에 춤을 추던 슬픔이 노오랗게 번지고, 안녕이란 그대의 말이 춤을 추며 안개처럼 흩어져 가고, 진눈깨비 날리는 창밖에는 그대와 내가 함께 어지러이 날리고 있다.
길 옆 꽃가게의 유리창 속으로
노오란 튜올립이 보인다.

그대가 보인다.
그대의 말(言)이 보인다.
말이 사상(思想)을 지배한다는 것은 대학 들어와서 안 일이지만, 말이 기억을 지배한다는 것은 그대를 만나고 나서 안 일이다.
..기억들조차...그대가...아니, 내가...제기랄...!
..노·오·랑·게...물·들·어...있·는...것·을...본...다.

지금
창밖에
내리는 눈비 사이로
스멀 스멀 젖어드는
그리움은
노오란
빛깔이다.

“새로운 가능성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터”

당 선 소 감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시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작가 나름대로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란 거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냥 거울이 아

닌 요술거울 말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내 삶을 보여다오”라고 주문을 외면 거울은, 흐르는 강물로 인해 이지러지게 비춰진 하늘, 그 안에 조그맣게 자리잡은 조약돌 하나를 보여줍니다. 사랑, 슬픔, 절망, 때로는 기쁨이 흐르는 강물속에서 늘 하늘을 꿈꾸며 때론 조망하며 둥글둥글 다듬어져가는 조약돌. 처음 시를 쓸 때는 여러 시인들의 시집을 읽으면서 그들의 작품을 흉내 내면서 닮으려고 노력하였는데, 마침내 내 목소리로 내 시란 이런 것이라 하고 내놓은 것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희열,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으로 꿈꿔내는, 가슴 깊은 곳의 작은 혼돈이었습니니다.
이런 혼돈들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저를 뽑아주신 심사위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며 좋은 시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송상은)

세계와의 정신적인 유대가 벌써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우선 갈망하고 사랑해야 할 이 행복의 추방이기 때문이다. 기형도의 시는 실존을 겨냥하여 쓴 시이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죽음, 즉 편안한 소멸을 택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이미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는 삶의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죽음의 이미지를 선택하였으며 심오한 '죽음'의 철묵 속에서 마침내 탄생을 꿈꾸고 있다.

3. 결론

기형도의 시는 동시대의 다른 시들에 비하여 이념, 사상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잘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성에 있어 견고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죽음보다 깊은 절망'을 인간의 실존적 상황, 당대의 현실과 연결시킴으로써 전반적으로는 고통의 표정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결국 실존의 가능성은 획득되지 않았고 그 죽음의 이미지에 비하여 희망이 너무나 빈약한 까닭에, 많은 독자와들 평론가들은 그의 시를 실존주의자의 시로 읽어내기보다는 한 허무주의자의 망설임 정도로 읽어내고 있다. 그러나 희망을 향한 항일성과 적극적이고도 밝은 통로만이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님은 익히 동감하고 있는 바 다.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주제 속에서도 고통의 길고 긴 연대감을 구현해냄으로써 작품은 독자들을 그의 울타리 속에 소유하기도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희망을 삶의 거주점으로서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알베르 까뮈의 글을 소개하기로 한다.

내가 희망하는 데 따라, 나 자신만의 진리와 존재하는 방식 또는 창조하는

방식에 신경을 쓰는 데 따라, 결국 나의 삶을 규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 따라 스스로에게 울타리를 만들고 그 속에 나의 삶을 가두게 되는 것이다.
-알베르 까뮈, [다시는 자살을 꿈꾸지 않으리라]에서

이글에서 알베르 까뮈는 희망이 움직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정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 모든 것은 정돈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정감도 조용한 표면 또한 여러 사상가들의 많은 '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함의는 함의가? 이성으로 신을 발견할 수는 없는 것처럼 희망만으로 진지한 세계의 표정을 읽어낼 수는 없다. 인간은 가끔 희망을 갖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희망을 잊어버릴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기형도이다. 그는 열정과 침묵의 이원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의 철묵 속에서 마침내 탄생(죽음)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마음 속에 품었던 겨울의 공포, 밤의 공포, 거리의 공포, 삶의 공포, 타인에 대한 공포 등등은 이제 그와 함께 격리되었다. 불모성이 제거된 '박'공간을 왕성한 생명의 장으로 전환시키고, '안'공간으로 회귀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 우리들의 몫이다. 이 시대의 곳곳을 묘사하여 의식과 신념이 함께하는 '유도피파의 장'으로 회귀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기형도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면관계상 각주를 생략함.